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 編輯 印刷人 方應謨

社說

行政機構改革 問題의 推移

一

國策七項目이야 具體化하지 못한이때에 陸軍이 庶政一新斷行前條件으로서 標榜하는內閣行政機構改革問題가 表面에 登場하엿다. 去二十一日 寺內陸相이 永野海相과 함께 廣田首相에게 提示한 內閣行政機構改革案은 北海道에서 擧行되는 大演習으로因하야 아즉 具體的으로 閣議에서 討議하는 機運에 達하지못하엿스나 閣僚에對하야는, 閣僚自身의 地位의 變化問題이오 傳統的인內閣制度의 根本的改革問題인만큼, 그重大性에잇서 가장큰 關心을가지고 議論하고잇다. 政黨方面에잇서서도 各各其態度를 決定하기爲하야 研究에 着手하고잇는데, 政友會는 大體로 軍部案支持로 民政黨은 自重, 社會大衆黨은, 行政機構改革은 獨裁强化로 나가는것이라고 反對하는 態度를가지고잇는 모양이다.

二

軍部의 主張하는 行政機構改革의 精神은, 말할것도업시 廣義國防, 綜合國策의企畫및 그遂行에 當할 强力한 統制機關의設置에依한 各省의 例의奪權分爭의終熄, 省의廢合에依한 事務의合理化를 主眼으로하야 이러한必要上, 綜合國策遂行에 關與할 無任所大臣의 設置를要望하는모양이다. 이結果 現在의內閣調査局資源局의 諸機關을擴大强化하야 國策企畫을爲한 大統制機關을 新設할것이 그內容의 하나로되여잇다 그런데 陸軍의主張은 當然히 이러한機關의長官으로서 無任所大臣을 그任에 當케할것을 豫定하고 잇슴으로 이點을 볼때에 이러한機關의長官이되는 無任所大臣은 總理大臣의 地位보담, 實質的으로 有力한 地位에 서게될 可能性이 잇겟다는 批評이 一部에잇는것도 잇슬듯하다. 또한 省의廢合에잇서서 商工省 農林省을 統合하야 産業省으로 遞信省, 鐵道省을 統合하야 交通省으로 하자는等, 重要한變化性을 表示하는것은 亦是 統制强化가 目標라고할것이다.

三

省의 廢合을 斷行케되는것은 內閣制度上의 一大變革일뿐만아니라 官僚의 人的關係여러가지로보아 大端히 複雜微妙한 問題이다. 더욱이 無任所大臣四五名이 各各 陸海, 藏相, 最高企畫局長官을 兼하야 眞實한意味의 國務大臣이되고, 他의大臣은 單純한 一省의 行政長官이 됨에끄치는것은 말할것도업시 統制强化를 意味케 되는것으로서 注目할만하다. 아즉 이軍部案도 具體的인것이아니오, 이問題는 大演習終了後 閣議에서 만흔 曲折을겪거 確定될것도아니오, 最終의것으로써 實現될것임으로 이제무어이라고 論評하는것은 時期尙早의 感이잇지마는 엇더튼 이問題에對한 閣僚大部分의 意思가 極히 消極的이라는것은 從來의 經過로써 斷言할수가잇다 庶政一新에 向하야나갈 前途로써 國策으로 軍部의 行政機構改革如何는 實로 改革에對한 一層 注目할것이다. 正案과 이에對한 政府의 態度의 動向의 바로여기로서 가장

『팔레스타인』全土에 아라비아人의 騷擾惡化

英政府, 駐屯軍總司令에게 一切의 權限賦與

全土에 戒嚴令布告!

【倫敦廿九日發同盟】英國政府는 팔레스타인地方에서 亞剌比亞人騷擾가 惡化함에 鑑하야 二十九日夜 內閣令으로 팔레스타인全土에 戒嚴令을布告하고 팔레스타인駐屯軍總司令데르將軍에對하야 戒嚴令施行에 對한 一切權限을 附與하엿다

軍部의行政改革案 研究會全面的支持

【東京電話同盟】軍部兩大臣이 廣田首相에게 提出한 行政機構改革에 關하야 貴族院各派에서는 이 實現을 極力要望하고잇스나 最大會派인 研究會의 有力者는 如左한 意向을 갓고잇다

軍部가 根本的行政機構改革案을 提案한것은 要컨대 現在의 機構로는 到底히 英斷的 庶政一新을 圖하기는 困難하므로 先決問題로서 그改革을 提唱한것이겟 提案內容은 吾人이多年要望하여오든것과 全혀 一致하는것으로 現在停頓되든 政의 一大刷新을 企圖함에는 적어도 이程度의 改革을 斷行치안흐면 안될것으로 잇는다 그리고 如斯한 根本的改革을 行하려하면 組閣當時全部의 閣僚를 任命치안코 半數程度는 首相其他閣僚의 兼任으로두어야할터인데 廣田首相은 現在의 機構를 是認하고 全閣僚를任命한 今日에 至한 것이므로 首相이 큰英斷을내지안는限 그實現은 不可能하다 萬若軍部兩大臣이 어데까지 그實現을 要求하고 他閣僚는 反對한다면 內閣不統一을暴露로 內閣瓦解에 誘導할것이다 그러나 我等은 비록內閣이 한層의 犧牲하드래도 此際에꼭 內閣制度改革 實現을 要望하는者이다

米財務當局 經濟會議開催說否認

【華盛頓二十九日發同盟】英米佛三國通貨協定에 繼續하야 目下世界經濟會議再開說이 頻頻히傳하고잇는데 右에關하야 米國財務當局은 二十九日如左히말하엿다

目下 世界經濟會議再開說이 頻頻히傳하나 今回成立한 三國通貨協定의 效果에對하야 相當한期間을두고 詳細히觀察한後가아니면 經濟會議問題에關하야는 特히考慮할理는업슬것이다 따라서 目下形便으로는 世界經濟會議가 急速히開催되리라고는 밋을수업다

天皇陛下께옵서 札幌에錦旗御進發

【札幌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石狩野의 陸軍特別大演習御統監을爲하사 十月一日부터 札幌北大農學部의 行在所에 錦旗를進하옵시고 二日부터 五日까지 東北 北海의精兵의演習을 御統裁하옵신다 北海道行幸도 御上陸以來 이미 御五日間三十日로써 地方行幸은御無恙 終了하옵신다 札幌行在所에 계압시여서는午後八時부터 男女學生靑年團等의 奉祝提燈行列에 御目禮를 賜하압시고 天機더욱이 御麗하압시다

三笠宮殿下 騎兵少尉에御任官

【習志野電話同盟】習志野騎兵第十五聯隊 第四中隊 見習士官으로계신 三笠宮殿下께서는 陸軍將校全課程에 御研鑽을加하시와 十月一日附로 御慶賀로시게騎兵少尉에 御任官하시엇다 또 殿下께서는 同夜上野驛御發 北海道에赴하시여 陸軍特別大演習御陪觀에 나가실御豫定이시라고承聞한다

西班牙動亂畫報

寫眞上 激戰의뒤에 死都의 市街가되여버린 이룬市의 廢墟와가튼 慘景, 寫眞下、이룬市의 戰火를 避하야 對岸인 佛國領土에 빈손으로 건너온 避難者들이 江岸에서 갈곳업서 멍추는情景, 철모르는 아해들의 모래작란이 더욱 可矜하다.

蔣氏依然廬山滯在 南京의形勢觀望

二三日內로撤歸든지不然이면交涉을繼續

日中關係大岐路直面

【上海卅日發同盟】蔣介石氏는廬山에머무른대로 南京의 形勢를 觀望하는 態度를取하사 二三日中에 歸京할것가지도안어도南京政府部內에서는 只今對日强硬論을 中心으로 무서운暗流가흐르고 最後的段階에 到達한것과가튼 感이잇다 二十九日의 川越大使와 吳鼎昌實業部長의 會見 須磨總領事와 會見後의 高宗武司長의 廬山急行, 行政院 會議에서의 討議等 中國側의 活潑한動向을보아 局面打開의 可能性은 極히 薄弱하야 最後的으로는 蔣介石氏의 決意表明이 最後에남은問題가 되고잇다

川越大使로서는 四國의 强硬論에도 激하지안코 自肅하야大使로서의 使命에邁進코저 依然南京에 나머잇서 中國側의 反省을 거대릴터로 中國側이 日本側의 重大決意를 밋지안코不神事件頻發에 依하야 急轉回한日中國交調整交涉에 對하야 도모지 合理的解決을하려하지안코 不遜한態度를持續하고 잇는것은 國民政府首腦部가 아마 蔣介石氏에게 日本側의眞意를 充分히 傳達하지안흔結果로 推測되는點이 잇슴으로川越大使로서는 空然히 隱忍自重할때가아니라 交涉相對가 蔣介石氏이든 張群氏이든間에 國民政府代表者가 日中國交問題에對하야 最後的意思表示를 할이아니면 斷乎撤歸하든가 交涉을繼續하든가 最終的案을 네리려는것으로 今後二、三日中의交涉에 兩端間決定될것으로觀測된다

松井長官朝滿視察

【東京電話同盟】松井資源局長은 朝鮮關東州 滿洲及 北中方面의 一般狀況視察次로來月十二日東京發十一月下旬歸京할豫定이라한다

首相四日發北海道行

【東京電話同盟】中國側의不誠意로 日中關係는 極度로緊張하기에이르럿스므로 廣田首相은 大演習陪觀을爲한 北海道行을 延期하고잇섯는데 最近日中關係의 緩和及 이에對한日中의方針을上聞에達하고 다시最近一般行政事項에對하야 奏上할必要가잇스므로四日上野發 渡道 大演習地에서 天皇陛下께拜謁 委曲奏上 各種御下問에奉答 六日觀兵式陪觀에參列 即夜또는七日歸同地發歸東하기로되엿다

來年度大演習地로 山陰松江附近有力

【札幌電話同盟】來年度特別大演習地는 目下參謀本部에서內定中이던바 今年度大演習終了한後 實地調査한후에 決定 今年末까지에 上奏御裁可를經하야關係方面에 命令으로서 內示하기로되엿는데 昭和二年以來 擧行되지아니한 中部地方이 採用케되면 또參加部隊는 順番制로한다면 中國地方이 가장 有名한 候補로보인다 또一部特殊한事情이잇는때에는 中部地方代身에山陰松江附近이有力視되고잇다

카自治洲政廳 壯丁에게總動員令

【바르세로나二十九日發同盟】首都마드리드의 危機와함께 카타로니아自治洲政廳은 二十九日十八歲以上四十歲以下壯丁에게 總動員令을 發하엿다

社會大衆黨과 勞協合同離의全貌

高揚하는 따시즘의 波濤에 對抗하야 自己防衛의 立場에서 戰線統一을 刻下의 急務로하고잇다 勞農大衆과 最近의『로듸』인 『人民戰線』이 日本에서는 如何히 民衆에게 興味를 모으고 眼前에 奇妙한 室內劇이 演出되엿다.

『合同하자!』—勞農協議會派
『合流하고십흐면 入黨하라!』—社會大衆黨

去月末부터 數回에 亘하야 勞協派對社會大衆의 戰線統一交涉에서 兩者가 하는말이다.

『合同』과 『入黨』사이에 如何한 差異가잇는가 門外漢으로서는 理解키어렵다 門戶를 開放하라!고 勞協派가 要求하면 支部別로 我黨支持를 決議하라고 社大側이 應한다. 要컨대 勞協側希望은 社大가 勞協을 一勢力으로서 認定하고 對等한 形式을 밟고 勞協側에 對立할라는것이오 社大側은 勞協을 度外視하고잇다 大體 勞協은 去七月 再組織때에 發表한 聲明에 依하면 『日本에 人民戰線統一을 爲한 [illegible]』 社大黨이 門戶를 열면 社大黨을 中心으로하는 戰線統一을 [illegible] 無條件으로 合流하자는 意圖이엿슬것이다.

그런고로 今回統一交涉이되엿는데 社大黨으로부터 最初부터 門戶를 開하지안코 『我黨은』 [illegible] 只今다시 勞協等과 [illegible] 組合單獨으로 社大支持를 決議하야 入黨申込을 하면조치안흐냐고하면서 合同協議委員會開催를 提唱하기始作한것이다 어데까지던지 『勞協』

[illegible]

今回의合流=加藤氏의 社大復歸問題에는 社大側으로보면 將來의黨內=加藤派形成의 包子인 感이잇슬것이다. 勞協派의 形式的面子主義는 結局加藤氏地盤의 執主義에 基하여잇는것이오 社大의「現實的」合流主義는 (特히總同盟系를 中心으로) 加藤恐怖病에原因이 잇는것이다. 그러나上述한 戰線統一은 現在組合員大衆이 一致한 要望이고 이미勞協派 內部에서 [illegible] 獨立으로 合同에나아가자는傾向이 濃하다 [illegible]

「人民戰線」戰術은 數年前勞農運動界에 高唱된「미트로프」로부터의統一戰線」에對하야「우으로부터」合流를 强調하는바에 新意義가잇다고말하는데 大衆的行動을件한것인以上 成否를左右하는것은 結局大衆의 動向에걸린것에틀림은업는것이다

稅制改革案에 反對氣勢濃厚

藏相、貴院方面과兩黨總裁에 內容說明코諒解要望

【東京電話同盟】中央地方을 通한 負擔均衡과 增收를 目標로한 改革案은 去二十二日 閣議에서 承認을 求한後 大藏、內務兩省으로부터 改革案要綱을公表하엿는데 財界方面에서는 벌서부터 改革案反對의 烽火가올르고잇다 또貴族院, 政黨方面에서도 反對氣勢가 漸次 濃化하게되고잇스므로 馬場藏相은 最者 貴族研究會, 民政, 政友兩黨을 歷訪, 改革案內容을 說明하야 諒解를 求하엿는데 다시三十日午前九時 馬場藏相은 中島政務次官, 山田主稅局長을 帶同하고 貴族院公正會의 財政政策改善에關한 委員會에出席, 改革案內容을 說明 다음 牛込私邸에 町田民政黨總裁及 九段私邸에 鈴木政友會總裁를 歷訪 同樣改革案內容을 說明하야 現下時局에 鑑하야 그實現에對하야 協力支援을要求할터로 懇請하엿다 그案은 極히非社會政策的이어서 結局은 大衆課稅로되고 或은 大衆負擔으로서 相當히 困難하리라하야 反對 政友會方面에서도 同黨傳統的政策인 地方自治擴充과는 逆行的稅制案이라고 相當히 强硬한反對意見이잇스므로 議會에서 相當한修正을 加하지나아니할가觀測되며 今回稅制改革案을中心으로 各方面의議論은 今後더욱거룩할것을따라 白熱化가 豫想되고그進行이重視되다

行政機構의改革 政府取扱에苦慮

軍部서끗까지原案固執時는 內閣에重大影響波及

行政機構에關한 陸軍案의要旨는 去二十一日 寺內陸相으로부터 廣田首相에게 提出되엿스므로 政府首腦部는 廣田首相을中心으로 鳩首對策을 協議하고잇섯는데 陸軍案의內容이 省의廢合 無任所大臣의設置 國策綜合統制機關의設置等을包含한 內閣官制의根本的改正을 必要로하는 [illegible] 매우重大視하고 [illegible] 卽政府로는 미리 [illegible] 項目으로 行政機構의 [illegible] 改革에對하야는 [illegible] 大體反對의 [illegible] 閣內 [illegible] 然히 軍部 [illegible] 內不統一을 [illegible] 府首腦部는 本問題取扱에 매우 苦慮하고잇는 模樣이다

海參威를中心으로 蘇聯海軍大演習

발틱海에서도獨逸을假想敵으로演習實行

全水上艦隊를網羅코

【莫斯科二十九日發同盟】蘇聯政府는민스크及하바로후스크方面에의 陸海軍大演習에이어 一九三六年 極東의 作戰演習으로 발틱海及 太平洋兩艦隊를動員 海軍大演習을 開始하엿다고 報道되는데 參加艦隊數는 嚴秘에附하엿스나 今回의演習은 蘇聯海軍未曾有의 大規模의것으로 就中 極東에서의 海參威艦隊를 根據地로한 新銳潛水艦及 空軍部隊로서 假想敵國의 海參威艦隊及 近海沿岸攻擊에 對備한다는 想定이며 極東軍司令官브류헤르將軍極東海軍司令官비크로프提督을 主班으로한 陸海軍首腦部는 觀戰하기爲하야 이미 海參威로 出航한 一方발틱海에서는 全水上艦隊를 網羅하야 獨逸을假想敵國으로 壯烈한 演習을 行하고잇다

부라질排日首領 協會에서放逐

【리오데·자네이로 廿九日發同盟】토레스 協會書記長 포-라氏는 부라질國內 唯一한 排日團體인 同協會를 利用하야 移民二分制限案成立其他에 黑幕으로서 活躍하여왓섯는데 過般心理的大革命家로서 알리인 라보라中佐가 協會長에 就任한以來 日本移民問題에對하야 兩者意見이不合하야 포-라書記長은 드듸여 辭表를 協會本部에 提出하엿다 協會首腦部는 書記長의 辭表提出을 爲하야 過日來 連日會議를 開催하고 協議를거듭하여왓는데 드듸여 二十八日首腦部는 同氏 辭表를受理하기로 決定하엿다 포-라書記長이 로레스協會서 放逐된다 하더라도 從來 極端한 排日的態度를 改[illegible] 생각되지안흐나 同協會와가튼 背景이업는 同氏의 主張이 매우威力을 削除當케되것은 確實하다 同氏는 從來全國의 諸州에잇는 協會主催의 [illegible] 合等을 利用하야 宣傳에 [illegible] 中이더니 右協會를 利用할수 [illegible] 게된것은 致命的 大打擊이라 [illegible] 것이다

레스타단치히委員 聯盟副事務官推薦

【쥬네브廿九日發同盟】나치스의 勢力이 增大한 단치히自由市의 聯盟高級委員 레스타-氏와 自由市에서 나치스政權과 每事에 反目하고잇섯는데 同委員을 召喚하야 後任을 任命할것으로보이더니 理事會는 卅日午前 秘密會를開催、레스타-高級委員의 報告를 聽取하엿는데 英 佛 波三國代表는 레스타-氏를 聯盟高級委員으로부터 辭退시켜 아스카라에 氏後任으로 聯盟副事務長에 推薦할것으로 보인다.

金禁輸法案等 和蘭兩院서可決

【헤-그廿九日發同盟】和蘭上下兩院은 廿九日夜開會 金輸出禁止法案및 爲替手形基金設定案을 審議하야 討議한結果 原案을可決하얏다

橋本北中參謀長

關東軍參謀長等과密議

【新京三十日發同盟】橋本北中國駐屯軍參謀長은 昨日에 機飛하야 三十日午前十時부터 關東軍會議室에서 板垣關東軍參謀長 今村同副長等과 極秘裡에 會見하고 北中問題 今後의具體案에 對하야 協議를遂하고 正午辭去하엿다 橋本少將은 明一日飛行機로 天津에歸任하야 關東軍과 協議한結果를 田代司令官에 報告할터이다

總督府全般에亘한 事務官級大異動

約五十名의廣範圍

總督府及 地方官官制改正에伴한 事務官級의大異動은 林政課長後任 農村振興課新設及 京城府三部制實施로 十月二十日附後에 正式發令을 行하기로되고目下人事課에서 銓衡中인데 本府及地方을 通하야 新任及 缺員事務官은 七名에及함으로 新進有爲의 人材를 拔擢할 方針인바 目下 日本內地로부터 轉入은 豫想되지안코 部內全般에 亘하야 그範圍가 적어도 五十名을 不下한廣汎한 移動을斷行할豫定이다

辭令

城大敎授 大內武次
敍高等官二等
道事務官 佐佐木忠右衛門
同 阿部千一
勅任官으로待遇
道技師 松田鶴次郞
高農校長兼敎諭 寺門良隆
道視學官 升谷宗七
農事試驗場技師兼高農敎授 中山昌之介
城大助敎授 田邊操
林業試驗場 富士川湧
道局技師 [illegible] 謙次郞
敍高等官三等(以下略)
朝鮮總督府地方 [illegible]
判事 大森德次郞
[illegible] 地方法院檢事 [illegible]
判事 米原先
[illegible] 行森孚
[illegible] 平石林
[illegible] 林英贊
[illegible] 文炳堯
[illegible] 中尾龍太郞
[illegible] 佐野耕一

人事·集會

[illegible]氏 (中央高普校長)入京
[illegible] 本社
[illegible]氏 三十日市內樂園町八 [illegible]에서 [illegible]

朝刊後市況 三十日

大阪 短期 新期

新	七二一〇	(二〇低)
新二	一七四五〇	(不變)
新三	八二一〇	(一〇低)
	二三八五〇	(四〇低)

試驗關門擊破할 武器精錬의 道場

讀書의 가을篇

◇신량이교허、등화초가친(新凉入郊墟、燈火稍可親)」! 옛사람부터 가을을 가르켜 이러케말하엿거니와 가을은 참으로 독서(讀書)의 씨―즌이다 염열지옥(炎熱地獄)과 감질나게 지리한 장마에 느러지고 시드른 몸과 마음이 산뜻산뜻한 바람이 불어오자 가다듬어지고 다시사라나는 가을이다。

◇

◇구멍이 뚤린듯이 새파란가을하늘아래 오곡이 누런 빗을 띄이고 건들건들하는 벌다란벌에 나아가 한구렁이에 자리를 잡고 무심히 책장을 헤이고잇는 젊은이들을볼때 우리는 자연과 사람과 그마음이 혼연(渾然)히 융합되여 잇는것을 추각하며고마운가을날을 생각한다……

◇

◇팔월이라한가위스납 창밧게는 눈이부시이도록 밝은달빗치 대지(大地)를 비치일때 락엽을 재촉하는듯한 다듬이소리、바람에 들녀오는 귀또람이소리 바람결을 타고오는 먼동리개짓는 소리……고요와 적막을 바늣가리 표현하는 이분위기속에서 글읽는 동친하는맛이란 이튼바삼매경(三昧境)에들어갈것이다。

◇

◇가을이오면 봄이가깝다 졸업기가닥처온다 보통학교에다니는아이들은 중학교입학시험을 노리고 공부[illegible] 학생은 전문으로대학으로 그뜻을 펴치고잇는때이다 산으로바다가로 한여름동안이정든 학생들에게 수험공부의체력은 느진가을 서릿발과도가티 새로워진다 도서관(圖書館)에모히는 수천수만의얼굴을보라 나무입히떠러지그들에게 알려지는건 가을보다도 시험지옥(試驗地獄)이다 지옥을상대로한 이싸움이 그어찌 험하랴 채장을 넘기다가는 되푸리하고 중얼거리다가는 채장을넘기는 그손、눈、입……

◇올들을 취하기위하야 모하드는 그들은하면 제복의학생뿐이리요 세치로되는 허로써글 방 공수대의 이술이 뒤게생명을 무죄백방으로 삭허가라는 큰톳을 줍고 륙법전서(六法全書)를 벼파고잇는 변호사시험을 노리는 장래변호사를 그며 쓰는 장검(長劍)삼고 의사 영위 들어더행림(杏林)의 왕좌를 점령하고야 말겟다고 의사시험을 겨누고잇는 장래의따리들 이밧게도약제사시험 보통문관시험 고등문관시험 녀자로는 간호부시험 산파시험 수업는 시험을 압두고이관문을 뚜드리라는 용사들은 전비(戰備)를 몰샐틈업시하고잇는 그들은 넘어가는책장의한페이지 한페이지가 무쇠라도뚤를 줄칼이될것이오 읽어모흔한권 두권의책자는 닥처오는 시험전선에서 백만저병이라도 물리칠 포탄이될것이다

가을은그들에게 정렴을 북도으는 황금긔(黃金期)이다

危險한 朝鮮家屋

出火原因은 大槪煙突

昨年一年間의集計만四千三百五十七件

道別로는京畿道가第一位

작년 한해동안에 전조선서삼도에서 실화(失火) 방화(放火) 전기사불및 수상스러운불로 말미암아 생긴 화재사고는 사천삼백오십칠건으로 그가운데에서 조선사람의 집에서 난것은삼천구백사십오건 일본내지인집에서 난것은 삼백오십구건 외국인의 집에서 난것은 오십삼건이엿다 이를도별로보면 경기도의 칠백칠십구건을 필두로 그다음으로 경남에 오백륙십사건 평남에 사백팔십칠건 평북에 사백일건 경북에 삼백팔십칠건 전남에 삼백십일건 충남에 이백구십오건 강원도에 이백칠십이건 함남에 이백칠십일건 황해도에이백사십건 충북에 이백십구건 전북에 이백팔건 함북에 일백십삼건이엿다

그리고 불난원인을 자세히알어보면 온돌에서는 불을때다가 화재를 낸것이 제일만하서 전조선에서 오백구십건이나 되며 그다음으로는 굴뚝에서 난것도 사백칠십륙건이나되고 난로에서 불이나게된 원인은 굴뚝에서 난것이만코 아궁이에서 나는것도 불을때다가 난것이만코 목간에서도 굴뚝에서난것이제일만타

이밧게도 재(灰)를 잘 처치하지 안흔탓으로 난것과 아이들의불작난으로 말미암아 난것도만타

기차굴뚝 불똥이 떠러저서철로연선에 잇는인가에 불을낸것도오십칠건이나 되엿는데 그것은함남의 삼십사건이 제일만타

방화는 이백이십구건으로 조선사람집은 이백십일건 일본내지인집은 십팔건 외국인집은이건이엿다

過冬의準備로 物資略奪恣行

共軍長白縣에集結

【咸興】 이십팔일오전한시경 함남대안 십삼도구신창동삼포리(十三道溝新昌洞三浦里)의주동포촌락에 공산군김일성(金日成)의일대 제사려대장김주현(金周賢)의일대 오십여명이 습래하야 동촌리민전부를 한집에감금(監禁)하고서 대맥십석、축돈(畜豚)등을 모조리빼아슨후 동리주민김영수(金永洙)외팔명을 랍치(拉致)하야 그들에게 운반시키가지고 두패로들어가다

×

◇이십팔일오후아홉시경 십삼도구신창리(十三道溝新昌里)가신동(甲山洞) 의주동포촌을 습격하야 리송섭(李松燮)등 오호에서 의류등가장과 곡류전체를배아서가지고 갓는데 최근장백현(長白縣)내에 집결하고잇는 수천명의공산군들은 추석(秋夕)과 닥처올동절(冬節)의준비로서 배전(船前)매일하 이주동포촌락을 습격(襲擊)하야 이주동포들의생명재산은 풍전등화의가튼 위험한상태에잇다한다

豆滿江對岸에 土兵出沒頻繁

【會寧】 일긔가 벌서 추워지고 신록이 익어가는 요사이 두만강(豆滿江)건너 국경일대에는 날로 소연한 말성꺼리가 생기여 주민의 인심은 자못 전전긍긍한가운데에 잇다한다 지난이십오일밤 삼장대안(三長對岸)인송선사대옥석동자원수평 (樂善社大玉石洞字源水坪)에는 장산일파(長山一派)의 토병여덜명이 습격하야 주민여섯명을 랍치하야 갓는바 그다음날 아츰에 랍치하여갓든 주민중 리길송 (李吉松) 리홍근(李洪根)강병하 (姜秉河)의 세명을 석방하여주며석방하는 대가 도아지(豚)한머리[illegible]분(麥粉) 백주(白酒)를 가저오라고하고는 그만 밀림(密林)속으로 다라나고 마랏다한다 이십오일 밤 삼장대안이흥과하(紅旗河)에 고산일파(高山一派) 여덜명이 래습하야 략탈을자행한끄테 주민류형순(劉亨順)(六〇)외 여섯명을 랍치하야 가지고 승선사(崇善社)방면으로 다라낫슴으로 삼장서(三長署)이하 연안각서에서는토병의 침입에 적극방비하고잇다한다

永興에颱風襲來

【永興】 지난 이십륙일밤부터 약한시간동안이나 계속하야 쏘다지는 폭풍우로 말미암아 농작물의 피해가 막대하다고한다

남의집전세노코 경찰에붓들린자

주택난(住宅難)을 부르짓는이때에 남의집을 밋기로 집세를 바더먹은 얼굴가죽두터운 사나이가잇다 무교정(武橋町)사십륙번지 김원걸(金瑗杰)(三一)은 현재자긔가 거주하고잇는집은 청진정(淸進町)중국인 진화승 (陳和勝)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서대문정(西大門町) 일백삼구번지 김환팔(金煥八)에게 자긔의소유인듯이 속이여서 전세 일백십오원을 사취한사실이 발로되여 삼십일아침 본정서에 인치되엿다 여죄도취조중이다

◇點點에……(學生美術展覽會出品)

人氣의焦點 學生美術展

本社에搬入된것만 六百餘點의多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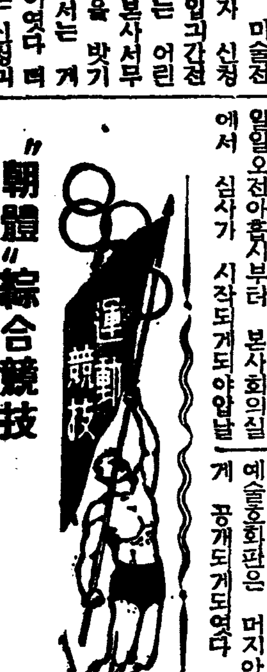
大邱、平壤、咸興、全州것到着後 今日부터審査開始

그림과 조각、자수와 수공품등에 뛰어난 천분을 가진 회심의 작품을 지어내면서도 이작품을 여러사람아페 공개하야비평을 바더서 더욱더욱 잘르는 천분을 발휘할 긔회가 드물은 조선미술계에잇서서 본사주최 제일회조선학생미술전람회개최발표는 흡사히 가뭄에 검은구름차와가티 전조선중등학생에게 크나큰 예술적충동을 일으켯다 이러하야 한번 미술전람회의 사고가 발표되자 신청서가 답지하는한편 반입긔간전부터 작품을 가지고오는 어린남녀학생이 몰려들어 본사서부부와 및 신청과 반입을 밧기로 지정된 지방지국에서는 겨원이 눈코를 못뜰지경이엿다 때한인 이십칠일이 지나서도한께여러학생들의 작품을 모아가지고오는 학교도잇서서 반입최종일인사십일까지 본사서무부로온작품만해도 서양화、동양화、자수、수공품、조각등합하야 륙백여점을 돌파하야 이에대구(大邱) 평양(平壤) 함흥(咸興)전주(全州)각지국에 들어오것을 합하면 무려일천여점을 훨신돌파할것갓다 전긔네지국에 반입된작품은 속속본사에 수송중으로 일일오전아홉시부터 본사회의실에서 심사가 시작되게되야압날의 조선예술계의 작을엿보게할 예술호회관은 머지아니 일반에게 공개되게도엿다

"朝體"綜合競技

陸上大會臨迫

參加延人員百廿名突破



朝鮮體育會主催의 第十七回全朝鮮綜合大會 陸上競技는 來十月三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인바 이에 出場할 選手는 멀리 天安、抱川、開城等地의 無名選手들과 中央의一流選手들을 合하야 四十餘名에 達하며 그延人員數는 實로 百二十名을 突破하는 盛況을 이루고잇다

◇陸上競技役員 ▲會長 尹致昊▲副會長 張權

大院君時代의砲臺를 崩壞한京東鐵道

由緖깁흔築臺石을工事에使用

鐵道會社暴擧에當局도考慮

【仁川】 고적보존의 주저를무시한 경동철도의 폭거=경동(京東)철도주식회사의 수인(水仁)철도부설문제는 바야흐로 문제화하고잇슬뿐아니라 부천에 가장 적절한 관계를갓고잇는 부천군청에서는 진정서가 산적하고잇는형편이나 일시는 남동면(南洞面)하천(河川)매립문제로 일조에 생활을 일케된 나루배 십이척의 선주들이 군당국에 살도한 끗헤 결국 위로금 으로 일만원을내이여 피차에 화해를 하고말엇든바 근자에일으러서는부천군남동면론현리(南洞面論峴里)에잇는 대원군(大院君) 시대에 축조한포대(砲臺)를작금에일르러 파괴하야 포대의축조석은도로공사에사용하고잇는것을 부근주민이발견하고 이를군당국에 고발하엿든바 군당국에서 조사한결과 역시틀림이업는사실로 판명되엿슴으로 그즉시로 도청에보고하야 방금도당국의처단을고대하고잇는데 이는총독부서도 보존에 고려하야왓슴에도 불고하고 전긔와가튼 폭거를감행하고잇슴으로 추호도 용서할수업다하야 방금주민들의 원성이자자하다고한다

現金과衣類寄託

咸山、中央兩幼園兒

【咸興】 함흥시내에잇는 함산(咸山)중앙(中央)의 두유치원의 철몰은난아동들도 이번남조선대풍수해의 참상을듯고 따뜻한인정애(人情愛)에 못이겨 각기현금흑은 물품을거출하야 어십팔일 본보함흥지국에 긔탁하야왓는대 함산유치원(咸山幼稚園)은 현금십사원십전 중앙유치원(中央幼稚園)은 의류일백구십오점의 다수에달하엿다

松逢公普同情金

【延安】 남조선 일대를 휩쓰린 재지에서 참상을당하야 의지할데 업는 어린동무들에게 보내달나고본보연안지국에긔탁한 금액과씨명은좌긔와갓다고한다

一、第一學年 金三圓卅五錢
一、第二學年 金三圓四十五錢
一、第三學年 金四圓十錢
一、第四學年 金三圓六十錢

梨花女高基靑도

誠金四十七圓餘寄託

부내 정동정(貞洞町)리화녀자고등보통학교 생도들로 조직된 리화녀고 학생긔독청년회 일동은 두어차례나 풍수재를 만나 집을 떠내려보내고 입을것먹을것을일코 길거리에헤매며 닥처오는 치위를마지하게된 가엽슨 백만리재민의 구제에 약소하나마 보태어달라고 학비를절약하야 푼푼히모흔성금 사십칠원팔십전을 삼십일 본사에 긔탁하여왓다

主婦節米會서도 義捐金을寄託

【宜寧】 경남의녕군의녕면서동주부절미회(西洞主婦節米會)에서는 회원일동이 그날그날의 가난한 살림에서 의연금을 모아서 금번풍수해에 가산을일코 긔한에 울고잇는 리재동포에게 보내여달라고 지난구월이십오일 금팔원칠십사전을 본보지국에 긔탁하여왓다

江原道의八郡에

又復暴雨襲來

人命死傷과被害多大

삼십일오후여덟시에 강원도경찰부장으로부터 경무국에드러온 정보를보면 수일전에강원도일대에나린 큰비로말미암아 린제(麟蹄) 회양(淮陽) 통천(通川) 고성(高城)양양(襄陽) 강릉(江陵) 삼척(三陟) 울진(蔚珍)등팔개군에 또다시 수재를 입엇는데삼십일오후세시까지 판명된것은 다음과갓다

▲죽은사람 일곱명 시체떠드러온것한개
▲부상자 삼십일명
▲행방불명 한명
▲가옥류실 오십칠호
▲가옥도괴 이백이십륙호 침수 이천오백륙십칠호
▲선박류실 팔 선박 전부파손 십구 반부파손 일곱이다
▲그리고 철도는간성(杆城)고성사이는 아직불통중이며 금강산전긔철도는 말휘리(末輝里)내금강(內金剛)사이는 삼십일부터개통되엿다

통신은 양양、린제사이와 양양、고성、회양사이가 불통중이엿는데 이십구일오후여섯시부터 고성、회양사이만은 개통되엿다

爆發物滿載한 發動機船發見

【木浦】 지난 이십팔일 오후칠시경에 목포경찰서원이 시내항정제빙소(市內港町製氷所)부근해안통(海岸通)을 지내다가 수상한 발동긔선(發動機船)이 정박되여잇슴을 발견하고 즉시그배에 올나가서 선내를 둘너본즉 선반우에잇는 어떤물건중에서 도화선(導火線)의곳치보임으로 즉시경찰서에 응원대를청하야 선내를 산산히조사한결과 「다이나마이트」일백륙십개와 뢰관(雷管)칠십오개와 도화선이속과 수중폭약(水中爆藥)칠개를 압수하는 동시 그배의주인인 웅본현천초군고근촌자백목천내(熊本縣天草郡高近村字白木川內) 이천륙백사십삼번지 영야무단(永野無猶) 가명(假名)과 제주도 대정면 가파리 이금호(濟州島大靜面加波里李今虎)외 사명의선원을 검거하야 엄중취조를한다는데 전기발동기선은 지난구월삼십일에 대련(大連)에서 출발하야 인천 흑산(仁川、黑山)등지를경유하야 이십팔일오전두시경에 석탄과물을 실기위하야 입항한숙환(旭丸)이라는 소형(小型)의 발동기선이라하며 련루자가 잇슴으로 극비밀리에 취조를한다고하다

訓民正音의 頒布紀念式

삼십일오후 다섯시반부터 시내태평통 부민관(府民館)에서조선어학연구회(朝鮮語學研究會)주최의 훈민정음반포긔렴식(訓民正音頒布紀念式)이 거행되엿다 다수한인사의 참석아래에 식은순서에따러 성대히 거행되엿고 유의한좌담회를 갓맛친후 동아홉시경 무사히폐회하엿다한다

師範附屬普校落成式

경성사범학교 부속보통학교는 홍파원본교구내에 교사를신축중이든바 지난칠월에 락성되여 이미새교사로 이전하엿스나 그후관계와 형편에따라서 락성식을 연긔하엿든바 오는시월삼일오전열한시부터 신축교사에서 락성식을거행할터인데 학부형은 물론이요 일반관계자의다수참석을 희망한다고한다

▲會長 朴勝彬▲委員 金圭冕 呂運弘 金東轍▲審判長 韓錫源 崔仁浩 蔣錫熙▲審判 崔慶洛 全有亮▲投球審判 朱興根 劉約翰 李雄 韓寅相▲計時員 李正相 郭爾根 白圭福 馬鳳玉 李用敏▲監察員 朴宇秉 吳壽泳▲召集 朴鍾惠▲通告 徐鋼奉▲出發 金龍九▲記錄 朴榮鎭▲救護 權錫根

實業庭球리ー그戰

鐵道、專賣各勝

總督府優勝確定

京城實業庭球리ー그…鐵道對遞信戰과 專賣局對朝銀戰은 三十日午後五時부터 殖銀、朝銀兩코ー트에서行한바 鐵道와專賣局兩팀이 勝捷하엿다 이라하야 全勝率을 確保하고잇는 總督府팀이 專賣局 또는 遞信戰에 一勝하면 優勝은 確定될것이다

【鐵道】勝【遞信】

鐵道		遞信
鄭士連・渡邊	4-0	松田・李鍾堤
長沼・秋山	4-2	小川・大友
朴源福・金乙鉉	0-4	宮崎・孫楓星
(第二라운드) 鄭士連・渡邊	4-0	宮崎・孫楓星

【專賣局】勝【朝銀】

專賣局		朝銀
全泳俊・金倜豊	4-2	加藤・中川
白僩輔・朴寅世	4-1	比田・横田
李鳳基・淺野	4-0	木津・福田

實業庭球11日現在

順位		總府	遞信	殖銀	鐵道	專賣	府遞	商銀	朝銀	比率
1	總府	:		○	○		○	○	○	1.000
4	遞信		:	●	●	○			○	0.500
2	殖銀	●	○	:		●	○	○	○	0.667
2	鐵道	●	○		:	●	○	○	○	0.667
3	專賣		●	○	○	:	●		○	0.600
4	府遞	●		●	●	○	:	○	○	0.500
6	商銀	●		●	●		●	:		0.000
6	朝銀	●	●	●	●	●	●		:	0.000

【○은勝●은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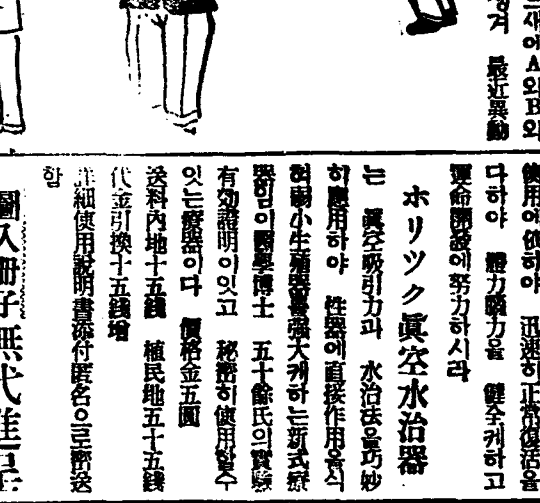
今日의運動

▲陸上競技=府內初等學校聯合體操及陸上競技(午前九時)
▲野球=靑年團野球決勝(午前九時) 府內公立普通學校野球리ー그決勝(午後一時) 京師對京商(午後三時)
▲庭球=府內男子 一般軟式庭球(A코ー트) 府內男子 中等學校庭球(B코ー트)(以上午前九時)
▲蹴球=培材高普對普成高普(午後一時)
▲씨름=府內一般日本式씨름大會(午後一時)
(以上京城運動場無料入場)
▲럭비=神宮競技 럭비1第一日 鐵道對京商俱(午后零時) 京城럭비俱對鐵道一軍(午后一時半) 養正對普成(午后二時)、培材對龍中(午后四時)以上龍山球場

同年輩이면서도 昇給하는男子 馘首되는男子

性的缺陷이原因

立身出世는運이아니다 結局은實力問題로서 샐러리맨으로서도有能의士는 뛰어나고 無能者는排斥된다。A와B와는어떤會社에同期入社의 同年輩로서 兩者共히俊才이엿스나 A는妻帶이지만B는獨身으로서 어느새에A와B와의地位에 懸隔이생겨 最近異動에A는異數의拔擢으로 課長이되엿스나 同時에B는馘首되엿다。B는 近日에 녯날의元氣가 喪失되여性格的으로도 極端의變化가생겻다。同僚가알어보니 意外에도B는性的缺陷者인것이 判明되엿다。



◇

性的缺陷이 體力腦力에미치는影響은자못크다。故로[illegible]發育不全(短小異形)또는 不自然行爲와 過度에因한機能障害(陰萎 早漏 遺精 夢精等)이잇는분은 ホリック博士의 世界的新學說에 基한物理療法 ホリック眞空水治器의使用에依하야 迅速히正常復活을다하야 體力腦力을 健全케하고運命開拓에努力하시라

ホリック眞空水治器는 眞空吸引力과 水治法을巧妙히應用하야 性器에直接作用을與하는 [illegible]新式療器로 醫學博士 五十餘氏의實驗有効證明이잇고 秘密히使用할수잇는療器이다 價格金五圓 送料內地十五錢 植民地五十五錢 代金引換十五錢增 詳細使用說明書添付匿名으로密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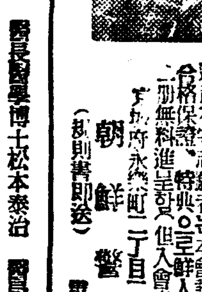
圖入冊子無代進呈 御葉書로 申込하면 參考가되는 『性の新知識』이라는 說明書를 匿名으로 密送함

東京市芝區神谷町十六 東京新療法研究所 振替東京七七三九番

效果不充分한 偽造療器이다。반드시 ホリック의文字에 注意하시요

◇官廳銀行會社就職紹介◇晝夜間男女生募集 第四七回生徒募集 十月十七日迄隨時入學許可 隨時授業ヲ開始ス◇學則送二錢切手 ◇張大舍校
實踐簿記專修學院 (晝夜)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番地 (電本五三六〇番)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開學缺員生募集은十月十七日迄隨時入學許可隨時授業開始(晝夜) ◉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學校入學又ハ編入 (學則送二錢切手) 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 (電本五三六〇番)



巡査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特典으로鮮人巡査試驗同胞集 一冊無料進呈함 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規則書即送) 電本(2)三〇三〇番

顧問 醫學博士 工藤武城 院長 醫學博士 松本泰治 醫局女醫 李敬信
癌科 라듸움科 京城婦人病院 電本②〇四八二・三八九三番・京城北米倉町九四

堅實職業
紙袋製造는家庭에서男女不問 簡單히되고○年中無休○原紙供給○製品은永久히現金으로取引 確實
引受 한사람을希望하시는분은案內書無代進呈 大阪市天王寺區桃谷町前電停前 代理店募集
太陽社營業部

朝鮮日報社 釜山支局 長途話釜山二八九七番

漢城銀行

訃告
金宗泰大親主金鐸斗氏
以宿患不幸於本月二十二日(陰八月十二日)午
前一時別世茲以訃告
昭和十一年九月(陰八月十三日)
孤子 金宗泰 宗基 宗[illegible] 宗[illegible] 宗[illegible] 宗[illegible] 宗秋
護喪 金斗[illegible] 金正倫 金炳鎬 金在[illegible]
友人代表 親戚代表
一、發靷日時 十月一日(陰八月十六日)
一、葬地 高陽郡新北面[illegible]共同墓地

仁川秋季淸潔 【仁川】 지리하든장마도 악이닷고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가을철을당하야 인천서에서 작기일에 의하야 대청결을시행하리라한다 ▲二日 松峴町 松林町 花平町 花水町 萬石町 ▲三日 本町 [illegible] ▲四日 龍雲町 [illegible] 花房町 [illegible]

慘憺한富川의農形
米作六割減收豫想
旱害와過雨에稻熱病으로 郡當局對策에腐心

【仁川】 작금의한발과수해로인하야 만흔재해를입고잇는 부천군(富川郡)일대에대하야 지난이십오일농고장에서 각면의대표자들이 소집하야 피해정도를 조사한결과 례년에 흉풍을모르고잇든 부평수리조합 구역까지 악오할이 나감수될것인바 이를전체적으로 계산한다면 례년에비하야 약사할의수확밧게는엇지못하게되얏다는데 작년도의수확고 현미(玄米) 십이만석여에대하야 금년은 사만팔천석밧게아니되는 참상이라는바 물론전부도말할수업는참상에일으러 벌서부터 일반농촌에는 기한의아우성소래가 시작되고잇다 이는 금년의한발과과우(過雨)에겸해서 도열병(稻熱病)등으로 인하야 농작물의태반이 고사한참상이라한다

肥料貸付資金 回收方途가漠然
萬一强制徵收를하게된다면 小作爭議誘發이念慮

【仁川】 평년에비하야 흉작을보게된 부천군(富川郡)일대에서 농민간에대한대차(貸借)관계를 조사하야보건대 군농회(郡農會)로부터 비료대부금 이십팔만원 은행지주들로부터의 비료대부금이 사십만원 도합오십만원에 달하는데 현재의정도로보아서는 한푼의 회수도가망이업다. 그러나이것을만일 강제적으로 회수한다면 의외의큰소작쟁의를 일으킬것임으로 상부관청정책이 여하한곳에잇는지 금후경과가 가장주목될뿐아니라 일반적으로 각종금융기관과 개인대금업자들에게 차용한금액도 적지안흔 형편이라 채권자들의 회수방법이 여하한처단을 나릴지몰라 흉작으로인하야 기근을면치못하는 그들에게 또다시 이중삼중불안을 늣기게하는 가장큰문제이라한다

仁川署의青年 不日間送局

【仁川】 십여일전 부천군남동면 고잔리(富川郡南洞面古棧里)최춘문(崔春文)(二七)을 인치하는동시 다수적색서적을 압수하고 방금엄중취조중이라함은 임이보도한바와갓거니와 그간취조도일단락을고하야 불일송국케되리라는데 탐문한바에의하면 이외에사명의청년이 규합된 적색독서회(赤色讀書會)사건이라는데 그는전기장소에서 강습소를경영하야가며 부근청년들과연락을 취한흔적이잇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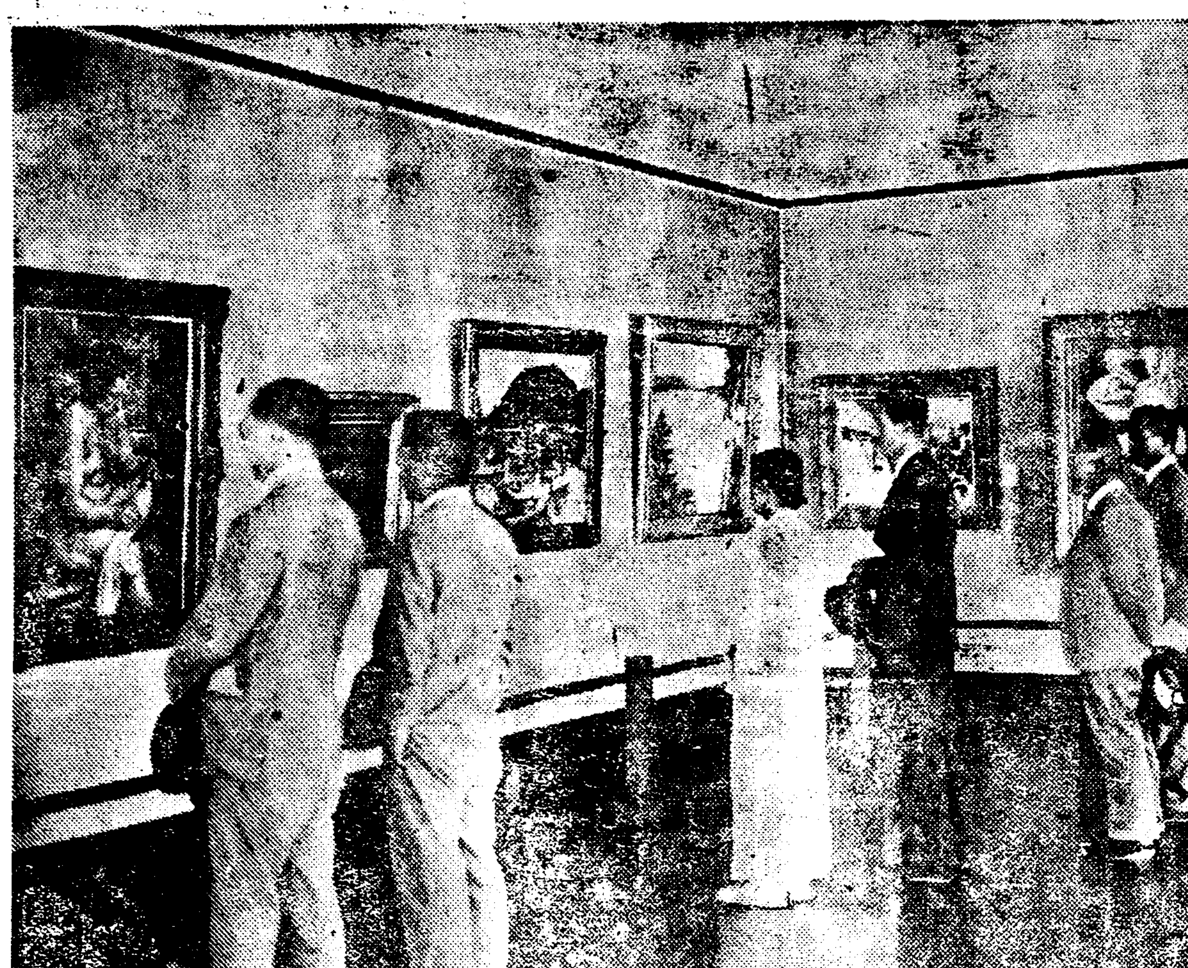
仁川支局에온 水害救濟金品

【仁川】 팔구량월을두고 지리하게도 쏘다지는폭우는 폭풍의세력까지합하여 중부와 남부조선을 여지업시 풍미하야 대중농가로서도 흉작을 불으지즈면서 살길이막연하다고 비관하는이때에잇서 떡구나 입을것도 먹을것도업시 도로에서 방황하는수해리재동포의정경은 참아눈으로볼수업는참경에 빠저잇다 이러한 동포를 만분의일이라도 구제하기위하야 당지 룡동가구상회(龍洞家具商會)의 직공일동의 피땀흘린동정금과 최정식(崔禎植)외오소년의 푼푼저축하모흔 금품또는 박문사(博文寺)인천지부의 의연등 구제품을 본보인천지국에 긔탁하엿는데 그씨명과 금품은 좌긔와갓다

▲龍洞家具商職工一同現金十一圓 ▲崔禎植外五少年取扱分現金三圓〇六錢 衣類十九點 ▲博文寺仁川支部衣類七十八點

伊東法院長寄附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장 이동순길(伊東淳吉)씨는 그의죽은부인의 기명(忌明)에당하야 삼십일에 돈백원을 경성부방면사업조성회(方面事業助成會)에 긔부하엿다한다



德壽宮美術館 —陳列品總交替今日부터公開—

富川郡一部統合 大仁川으로擴張
十月一日부터實施된新行政區域
里名은町名으로改稱

인천부(仁川府)의 행정구역이 다음과가티 확장되어 십월일일부터 시행하기로되엿고 종래의리명(里名)도 전부 정(町)으로고처젓다 종래에 인천부는 오십일정리(町里)이든것을 오십칠정으로느럿스며 부천군(富川郡)은 종래에 십오면일백사십륙리이엿는데 이번에 다주면(多朱面)이 인천부로 편입되여버렷고 문학면의 일부분도 인천부로 편입되여버렷스므로 결국 십사면일백사십리로 되엿다

▲仁川府部分

▲金谷町(金谷里) ▲昌榮町(牛角里) ▲花平町(花平里) ▲西京町(內里) ▲龍雲町(龍里) ▲京町(外里) ▲栗木町(栗木里) ▲萬石町 ▲旭町(寺町) ▲山根町 ▲宮町 ▲濱町 ▲花町一丁目 ▲花町二丁目 ▲花町三丁目 ▲敷島町 ▲桃山町 ▲松林町(松林里) ▲松峴町(松峴里) ▲花水町(新花水里) ▲海岸町一丁目 ▲海岸町二丁目 ▲海岸町三丁目 ▲海岸町四丁目 ▲本町一丁目 ▲本町二丁目 ▲本町三丁目 ▲本町四丁目 ▲柳町 ▲仲町一丁目 ▲仲町二丁目 ▲仲町三丁目 ▲山手町一丁目 ▲山手町二丁目 ▲山手町三丁目 ▲港町一丁目 ▲港町二丁目 ▲港町三丁目 ▲港町四丁目 ▲港町五丁目 ▲港町六丁目 ▲港町七丁目 ▲觀主町(支那町) ▲花房町一丁目 ▲花房町二丁目 ▲花房町三丁目 ▲松坂町一丁目 ▲松坂町二丁目 ▲松坂町三丁目 ▲櫻町(多朱面道禾里) ▲大和町(多朱面長意里) ▲朱安町(多朱面士忠里) ▲日之出町(多朱面龍亭里) ▲鶴翼町(文鶴面官校里의一部(仁川部에屬한地域) 承基里의一部 (仁川府에屬한地域)」 ▲鶴翼町 (文鶴面鶴翼里[illegible])

▲富川郡의部分

▲文鶴面 ▲官校里 (仁川에屬치안흔地域) ▲文鶴里(延壽里) ▲承基里(仁川府에屬치안흔地域) ▲靑鶴里 ▲東春里 ▲關石里 ▲九月里(多朱面九月里) ▲[illegible]里(多朱面關石里仁川府에屬치안흔地域) ▲十井里(多朱面十井里)

區域은四倍로 人口는九萬
新道路도設置할터

【仁川】 경성의 부구역확장을필두로하야 조선의 각도시구는확장도정에 잇다함은 루차보도한바와갓거니와 인천은 경성의 관문이요 또한조선항구의 기점이라종래의로 그조사에열중하든바 지난 이십팔일부로써인가가되야 인천부당국에서는 과중준비에 분망중이라는데실행시일은 시월일일이라하며이번에 편입된구역은 富川郡多朱面 道禾里 龍亭里 士忠里 長意里 十井里 [illegible] 文鶴面 玉蓮里一部 官校里一部 로서현재 면적의 약사배에달하리라하며 인구는구만칠천가량으로 증가되리라는데 이상편입부로써 정식의인가를밧게되야 동일오후일시부터 긴급부회를 소집하고 의제에 걸어 이와한가지 현재의산업도로로부터 화의리와문학리로 통하는도로와 도한종도로로 종합되리라는데 이로인하야 인천부예산은 [illegible] 증가되고 재이부예산은 [illegible]에 달한다

살림어려워 [illegible]의서를나어
畢竟警察에被捉取調

【開城】 본적을황해도 평산군 [illegible] 주소리 (平山郡[illegible])에 둔 [illegible]이란 부녀는 지난 팔월 이십삼일 오후삼시경에 부내남본정(南本町)사구사번지에 사는송금녀(宋今女)집에서 [illegible] [illegible] 순성선(孫[illegible]) [illegible] 전기성선은 [illegible] 성부내로 도망하기로 [illegible] 사람의집에 [illegible] 원주의 전기남편의 [illegible] 버리엇든것이라한다

輔仁學校運動會

시내 [illegible] 보인보통학교에서는 추긔운동회를 오는시월일일 오전아홉시부터 무문밧경평 [illegible]에서 거행한다는데 그날비가오면 그이튼날로 순연할터이라하며 부형과일반아동의 운동회도 잇스리라한다

白頭山探險講演
演士는金秉河、柳達永兩氏
三日高麗青年會館서

【開城】 지난팔월초순에 본보주최 백두산 탐험에는 역사, 지리, 박물등의권위잇는 제학자들이 어승산의 이모저모를 탐사하고 인문(人文)을 밝히게 되엿슴은 의미잇는 일이아니라수업섯다 그런데 이번 개성서도 본사의 후원하 김병하(金秉河)씨와유달영(柳達永)씨가 장가한데 이번 고려청년회관(高麗青年會館)주최로 당씨의일지답파한과학적 탐험보고강연회를 오는 삼일오후칠시반부터 그 소는고려청년회관이라는바 일반의래청을기다린다한다

松都高普財團完成
盛大한記念行事
音樂會、展覽會等開催

【開城】 개성부내 송도고등보통학교(松都高等普通學校)는 오는 십월일 삼십일 창립삼십주년 긔렴식을 게기로하야 재단법인성립축하식과 신축기숙사락성식의 긔렴행사를 겸해 음악회 전람회 운동회등 사일간을두고 성대히 거행하리라는데 시일은다음과갓다

▲音樂會 時日 十月三日下午七時半

▲展覽會 場所 中央會館 時日 十月二、三、四日間 場所 同校內

▲紀念禮拜 時日 十月四日午前十一時 場所 於北部禮拜堂

▲運動會 時日 十月五日午前九時 場所 本校運動場

티 보엿다. 그리고 그압헤는 개천이졸졸흘럿다. 하여간 팡홍은 처음에 답을들어 이런데서 한번 살아보앗스면 하는 생각이나서 그날로 수소문 해보와 면장의 집이라는것을 알고 즉시 면장을 차저가서 『대에 사랑채한방을 빌려주실수업슴니까』 하고 자청하엿다. 면장은 의외에도 쾌히 승락하여 면장후에 팡홍은 이집에와서 기숙을 하게된것이다. 와서 지내고 보니 그집과 터가맘에 드든것은 물론이요 면장과 그부인이 훌륭한사람이오 팡홍에게도 퍽친절하게하여 부모업는팡홍은 그들을 부모처럼 생각하게되엇다. 그러나 무심한 팡홍은 이집에 딸이잇는줄을 몰랏다. 몰을것도 몰을것이 그때 은명은 서울가서 공부를하고잇엇다. 바로 팡홍이 서생으로온든 그해봄에 은명은 이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것이엿다. 팡홍이 이집으로 온지 한달쯤지나서 한번은 우연히 개울물에서 은명을 만낫다. 그것은 은명이 여름방학이 되어집으로 온것이엇다. 은명은 얼굴을붉히며 팡홍에게 인사하엿다. 그때 은명은 [illegible] 생기를 [illegible] 그러나 팡홍은 [illegible] 생각하엿다

는곳이되엿다. 처녀는 과연 무처럼 커지고 오이처럼 잘아나는것이라고 팡홍은 생각할만치 은명은 무럭무럭 엄청나게도 커젓다. 그리고 그아름다운것은 커질사록 더팡홍의 눈을 황홀하게하엿다. 그러케도 호흡지게 트른하게 잘아나는 처녀에게 무슨 병이 잇스랴고 의심할만한데 바로 작년겨울에 은명은 얼굴이 핼숙해서 공부를 중지하고 집으로와 버리엇다. 의사의진단은 폭마염이라고하여 양약 한약을 다먹엇다. 이것을 보는 팡홍의가슴에는 웬일인지 [illegible] 락탁하는것갓고 실망하엿다. 그러나 면밀히 치료한결과 이봄부터는 완인이 되엇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다시 공부를 가지말라고하고 당자도 웬일인지 붓적 가겟다고 아니하는듯하엿다. 그리고 은명은 집안에 들어 [illegible] 것다. 팡홍은 조처오든 개를겨우 달내서 안으로 드려보내고 사랑채 자기방으로 들어와다. 면장이잇는 방과사간마루를 격한 외따로잇는방이엇다. 두간이나 되는 쾌큰방인데 영창을열고 내다보면 동내와 벌판이는 아래 죽—나려보다. 팡홍은 잘 간 퇴곤을줄라고 두손을 깍지끼여 벼개하고 벌덕 누엇는데 방문을 바시시 여는소리가 들리엇다。

雙虹舞 【8】

方仁根 作
金奎澤 畫

虫先生 (三)

팡홍이 이집으로 오기는 이학교로 부임하자 얼마안되어엿다. 어느여름 방학때 오투에왕 훈은 역시 버리지를 잡으려고 이산으로 올라오다가 이집을보고 욕심이 난것이엿다. 그것은집도 새집이 아니고 고색이 창연한예쩌집—어느때까지나 한가스럼고안정한 집이라는데 맘이들엇다. 벽구나 그집안에 과일나무들—그것은 요사이 흔히잇는과수원이 아니고그것도 옛날과목 밤나무 앵도나무 복사나무, 호도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은행나무, 그저 과일나무도 업는것이엇것다. 그리고 팡홍이 제일 조와한것은 사랑아페 심은 부용화와 석류나무, 란초, 모란이런 화초들이엇다. 그리고는 사랑문을 들어오는데는 계나리로 홍여를 틀고 추녀에는 아등넝쿨로 채알을 하엿는데 아마 이것은 근자에 맨든것 가

라 그저 어름어름 나중에서야 그것이바로 자기와 한집에잇는 면장의 딸인것을 알고 놀래엇다. 그처녀가 몹시 어여쁘고 똑똑연히 마음에 이상스럽게 집히며 가슴이 두근거리엇다. 그리고 한염증으로는 자기는 이집에 그러한처녀가 잇는줄모르고 왓섯지마는 다른사람이나 흑은면장내외까지도 자기가 이집에 기숙하겟다고한것이 무슨야심으로한것이나 아닌가하고 오해를 바들것이 염려되엇지마는 인제는 이집에 정이들기도하고 또 정말 내심으로는 그 처녀를 떠나가기도 섭섭한듯하엿다. 그여름은 몃번 힘갓힘갓 만나보기만하고 지낫다. 은명은머리따은 처녀이엇다. 겨울방학에 다시 왓을때 또 그이듬해 봄방학에 왓을때는 아주 커다란 처녀가되고 훨신 때가 버서세련된미를 소유하엿다. 그해가을에는 몸집이 약간버려지고 확실히 처녀의 고개에서 활작피

謹告

從來 黃金町一丁目出張所에서 營業을하든바 今番 本町二丁目으로移轉하고 十月一日의 始政記念日을卜하야 支店을 開設합니다
그리고 內外書籍雜誌類外에 文房具洋品雜貨化粧品類도具備하야 販賣하오니 못조록 倍舊의 愛顧를하여주시기를바라며 紙上으로 披露의말슴을드리나이다

昭和十一年十月

京城府本町二丁目 丸善株式會社京城支店 電話本局(2) 四三六六 五九〇六

營業品目
第一階 文房具類 洋品雜貨化粧品類
第二階 內外書籍雜誌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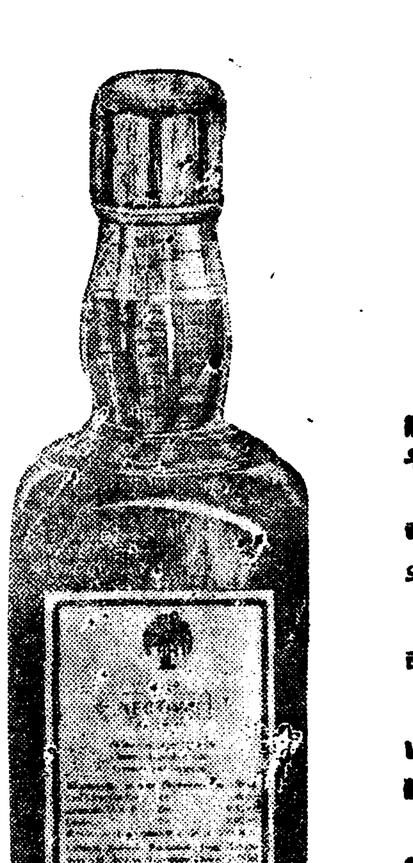
商標 千 고초가루 都賣 全山府京町 全千壽商店製粉部 電話局二八二番 二三六二番 振替全山一五五五番 時價表請求하시면 送呈하겟슴니다

朝鮮日報社 江華支局 電話三一一番

平壤基督病院에서도 버드나무票 네오톤 處方이最多

平壤基督病院은 宗敎的使命에서 至誠至純한 人類愛의發露로 創設以來長久한 歷史와 博愛的仁術에依하야 우리朝鮮人士에게 끼친裨益과功獻이야 말로 偉且大한것으로 其趣旨와實績에對하야 우리는 오로지 感激以外에 아모것도업다。
現在數氏의 醫學博士와 十餘名의 醫師의充實한 陣容으로써 더한층 이至純至誠한 使命遂行에精進하는바 過去에잇서서 이基督病院은本行發賣品世界的藥王인 버드나무票네오톤NEOTONE의 眞價를實認하야 實로數千폰드의 네오톤 을 處方한것이다。
그러나 近者本 네오톤 의 效力卓絶에因하야 廉價의 模倣品이 簇出함을따라서 經濟力이그러케 만치못한분에게는 버드나무票네오톤 代身에 廉價한 模倣劑를쓰게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本 네오톤 을 購하실때는 貴下가 信任하시는病院이나 醫師에게 버드나무票네오톤 의 眞否를 問議하시든지 或은藥房에서 本 버드나무票네오톤 [illegible]을 確實히檢閱하신後에 購得하서야한다。
要컨대 우리는 무엇보담도 信賴할만한 [illegible] [illegible]가 信用하고 [illegible] 이 優秀한 藥劑를써야한다。

네오톤 直輸入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七 大連市播河町一九 上海圓明園路一六九



全國各有名藥房에서販賣文獻及說明書請求即時送呈

若草映画劇場 電本二二五四番
9月29日ヨリ5日間·晝夜三回入替ナシ
1 胡椒娘 11·40 4·05 7·40
2 當りや勘太 1·00 5·25 9·05
3 求婚三銃士 2·45 6·20
(一) 三映社イレーヌ·ア·ジレイ主演
(二) ユナイト社エディ·カンター主演 (三)P·C·L千葉早智子主演
大人·五〇 學生小人·三〇

中央館 永樂町 電本二五五八
當ル一日封切(四日間) 最低料金拾錢
大都映畫超發聲時代劇 破れ凧 原作·監督 土方雄 阿部九州男 主演 東龍子·橘喜久子 助演
大都映畫超發聲現代劇 子は鎹 原作 伊井蓉峰 監督 吉村操 藤間林太郎·橘喜久子 主演
コロムビア映畫西部大活劇 孤軍奮闘 監督 ロス·レダーマン氏 テイム·マッコイ 主演
◇次回五日封切◇ 伊之吉時雨笠 父と子 爆彈トラック

第一劇場 鍾路五丁目 電光一三五番
十月一日부터三日間大公開
現代名篇 噂の女 栗島すみ子、川崎弘子主演 助演 大塚君代、齋藤達雄、山內光 日下幸上山草人 者 大山健二
ニュース多數紹介
◇松竹蒲田特作全發聲映畫 巨匠池田義信氏監督
◇漫畫 키-톤의爆彈成金
[illegible]
一回十二時부터二回興行 三回七時三十分開映

産業

農村機業振興
過剩勞力勞賃化
殖産局에서 調査進行

農村의 機業은 從來 朝鮮內에는 各地에 散在잇는 家庭工業의 生産을 보고 잇섯스나 然한 經營과 生産으로 모다 倒되고 잇는데 最近 農村工業化의 見地에서 殖産局에서는 振興策의 調査를 進行하고 이번의 風水害 救濟策에도 生産的 救濟策으로 이를 擧入하려고 各道 及 機業關係의 折衝을 進行하기로 되엇다

商工課에서 考究하고 잇는것은 朝鮮內의 産業組合及 契를 利用하야 有力한 機業家와 提携하야 家內工業式의 機業을 普及하고 過剩勞力을 勞賃化하려는것이다 現在 「揚子絨」「久留米絣」等의 加工製織을 相當히 行하고 잇서 이러한 種類의것으로 여러가지 工業을 비롯하야 그他를 調査하고 잇다

地方機業의 獎勵는 日本纖維工業의 優位가 地方機業에 依存하고잇는 點도잇서서 朝鮮의機業獎勵는 期待된다고 한다

自給肥增産
京畿道에서 獎勵
各郡農業關係者招集指示

京畿道에서는 今月初旬부터 來月六日에 亘하야 各郡의 農業關係技術員 金組關係者 其他 農業關係者들 各郡廳에 招集하야 肥料 其他 農事改良에 對한指導를 繼續中인데特히 自給肥料(綠肥、堆肥、液肥)에 對하야大增産을 目標로 그實現方法에對하야 左의具體的案을 徹底히하야 明年度부터 그實行에 着手하기로되엇다

一、綠肥(主로헤아리벳치)는從來增産奬勵에 努力하여왓스나所期의 成績을엇지못하고잇슴으로 今後 昨付面積의 擴張及 段當收量의 大增收를 實現할것

二、堆肥는 現在 段當百貫가량인데 今後 十年間에 段當二百五十貫으로 增産할것

三、液肥溜의 設置에 依하야 從來 草木灰와의 混合의弊를除去하는 同時에 그의 効果를 行할것

米統法實施協議會

【大田】忠南道에서는 지난 二十四、五兩日에 米穀統制自治管理實施에 對한 協議會를 道廳에

農村女子講習所 〃홈스펀〃講習

【大田】大田府外 柳川面旋場里에잇는 忠南農村女子講習所에서는 各郡으로부터 普校를 卒業한 女子三十名을 郡守의 推薦에 依하야 募集하여서 農村의 中堅女性養成을 目的으로 農業에 對한 學術을 敎授하여오든터인데 이번은 李範益氏의 考案으로 毛織(洋服地)의 製織法을가르키기로하고 지난十六日부터開始하엿는데 이것은 羊毛를 染色 紡絲하야 織製하는것으로 一般家庭에서 副業的으로 織製할수잇는만큼 크게 期待된다고한다

稻熱病被害莫大
困境의龍川一帶農民
水組費의免除를陳情

【新義州】平北龍川郡一帶는 稻熱病으로 收穫三割減을 豫想하고잇는바 그後被害가 益大하야 저 地方農民들은 水利組合費를 納入할수업스니 免除하여달라고 平北道에 진정하얏슴으로 道農務課에서는 係員을보내여 實情을 調査한후 適當한 處置를 하기로 決定되엿다고한다

鰮共同漁場
實現運動問題化

【淸津】咸北漁業의 大宗인 鰮의年産額은 五千萬圓에 達하야 東海岸 五道中에서 第一位를占하고잇는바 今般 咸南、江原、慶南北四道의 鰮漁業者가 結束하야 咸北沿海를 合한 東海岸共同漁場의 實現을 目標로 總督府當局에 猛活動을 繼續中이며 咸南의 巾着網業者는 이번 淸津에 가서 當地業者에 前記의 主旨에 對하야 諒解를 求하엿스나 咸北業者들은 이에絕對反對의 意를 表하얏다고하는데 이問題는 東海岸의 鰮漁業에잇서서 重大問題인만큼 그推移가 注目된다고한다

京城家畜大市狀況

京城府東大門外 家畜市場으로二十五日의 大市狀況은 牛入場頭數千五百三十頭 賣買頭數千二百頭 價格十四萬六千四百圓으로一頭平均 百二十二圓 最高二百二十圓最低五十圓 豚의入場頭數三百頭 賣買頭數二百三十六頭六千三百七十二圓 一頭平均二十七圓 最高四十五圓 最低十圓

日穀製油工場落成

【平壤】平壤府內船橋里 日本穀産工業株式會社에서는 二十七日 午前十時부터 船橋里同工場에서 創業五週年記念式과 精製油工場落成祝賀式을 盛大히 擧行햇는데 五個年勤續幹部와 職工百八十四名에게 表彰狀과 〃짜치〃를 授與햇고 午後一時부터는祝賀大運動會로 一層盛況을 일웟다 精製油工場은 武藤組의 請負로 建築된것인바 建築에 四萬圓機械設備에 十四萬圓 會計十八萬圓으로 竣工을보게된 鐵筋콩크리ー트二層의 大建築이라한다

滿鮮拓殖農地減收

朝鮮拓殖의 滿洲에잇서서의 所有地는 現在十一萬町步로 그中 現在 開畓한 農耕地는 約一萬町步인데 九月에入한 以來 鐵嶺農場을 비롯하야 降霜이만허 農作物의 被害가 甚하야 이結果 今年의 收穫은 平均三割程度減收될模樣이다

慶北米貯藏配當
四十四萬六千石
倉庫二千八百坪建設

【大邱】慶北道에서는 米穀自治管理法實施에關한 協議會에서協議한結果 各郡에 米穀統制組合을 設하고 聯合會를 組織하고 今年度부터 三個年間에 二千八百廿八坪의 倉庫를 建設하게되엇는바 此外 經費十九萬七千九百六十圓中 十五萬八千三百六十八圓은 國庫補助라한다 但組合員의 實際負擔은 坪當十四圓으로 合計三萬九千五百九十二圓이라한다。大邱府는 達城郡統制組合에 編入하고 鬱陵島는 除外한다하며 各郡統制組合의 貯藏配當石數는 如左하다한다。

達城	二六、六四〇石
軍威	一〇、七二〇
義城	二六、二八〇
安東	二三、三二〇
靑松	七、〇四〇
英陽	四、四四〇
盈德	一〇、〇〇〇
迎日	二四、四四〇
慶州	三七、三六〇
永川	三三、六八〇
慶山	一八、八八〇
淸道	二三、六八〇
高靈	一〇、三六〇
星州	二一、八四〇
漆谷	一四、〇四〇
金泉	三〇、三二〇
善山	一七、四〇〇
尙州	四四、七六〇
聞慶	一七、四〇〇
醴泉	一三、三二〇
榮州	一九、九六〇
奉化	一〇、三六〇
合計	四四六、二四〇

平北名産芦草
生産大增을豫想
一千百餘萬貫에到達?

【新義州】平北特産인 芦草의今年生産豫想高는 一百十八萬四千六百六十束 一千百六十六萬七千九百四十貫에 達하는바 昨年에比하면 百萬貫의 增産으로 그面積은 二千九百八十二町步라고한다

尺)에 特上品七圓、最下五圓사이에 品質에 따라 賣買되고잇는바 賣買時季는 只今부터 一個月以內가 가장旺盛하다고한다

大邱稅務管內 酒類製造數量

【大邱】大邱稅務監督局調査十年度 酒類製造數量을 八十三萬四千九百六十二石으로 前年에 比하면 八萬一千九百十二石의 增加인데 種別數量은 如左하다 (單位石)

濁酒	七二三、六九五
藥酒	一五、三二二
燒酒	六四、八一六
淸酒	三一、一二八

鐵原明紬市開始

【鐵原】옛날부터 全朝鮮에 有名한 鐵原明紬市가 저간開始되엇는데 鐵原市場에 모여드는 明紬는 品質이 良好하고 生産數量이 極多하야 朝鮮內는 勿論이오 日本內地로 移出되도적지안타하며 近年에와서는 宣敎師의 손을거처서 鐵原名産品으로 멀리 太平洋건너까지 進出되고잇다하는데 市勢는 一疋(四十

日用商品市況

京城 (九月廿九日)

◇菜蔬類

고구마	一貫	[illegible]
토란	同	[illegible]
馬鈴薯白	同	[illegible]
人蔘根	同	[illegible]
蓮根	同	[illegible]
生薑大	同	[illegible]
同 小	同	[illegible]
수박	同	[illegible]
胡瓜	百個	[illegible]
茄子	同	[illegible]
일년감	一貫	[illegible]
시금치	同	[illegible]
쑥갓	同	[illegible]
南瓜	本箱	[illegible]
玉蜀黍	十二貫	[illegible]
靑菽	一貫	[illegible]
미나리	一把	[illegible]
마늘	百個	[illegible]

◇菓實類

苹果 紅玉	四貫	[illegible]
同 旭	同	[illegible]
同 祝	同	[illegible]
梨 二十世紀	三貫五	[illegible]
同 博多	同	[illegible]
同 北海	同	[illegible]
夏蜜柑	同	[illegible]
바나나	一貫	[illegible]
栗	一斗	[illegible]
잣	一石	[illegible]
실백	一斗	[illegible]
胡桃	一石	[illegible]
銀杏	一斗	[illegible]
고추	百斤	[illegible]
고추가루	同	[illegible]
실고추	同	[illegible]
大棗	百斤	[illegible]
乾蓮根	一斗	[illegible]
生落花生	百斤	[illegible]

◇家畜飼料

豆粕乾粕	十貫	[illegible]

◇叺繩用織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尺幅	二寸目百斤	[illegible]
同	一寸半同	[illegible]
同	一寸目同	[illegible]
三尺幅	二寸目同	[illegible]
同	一寸半同	[illegible]
同	一寸目同	[illegible]
同	五分目同	[illegible]

◇毛皮類

앙고라兎毛 三吋半以上	一匁	[illegible]
同 三吋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以上	同	[illegible]
同 一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梳毛	同	[illegible]

◇川魚類

잉어	一貫	[illegible]
붕어	同	[illegible]
미꾸리	同	[illegible]
뱀장어	同	[illegible]
메기	同	[illegible]
가물치	同	[illegible]
자라	同	[illegible]
[illegible]	一升	[illegible]

◇家畜類

[illegible]	一貫	[illegible]
鷄卵	百個	[illegible]
生鷄	同	[illegible]
生豚	同	[illegible]
生兎	同	[illegible]
四季鳥卵	百個	[illegible]
鵝卵	同	[illegible]
綿羊	一頭	[illegible]

◇其他副業品

麥稈眞田	一反	[illegible]
經木眞田	同	[illegible]
杞柳	一貫	[illegible]
蓆	同	[illegible]
漆	同	[illegible]
椎茸	同	[illegible]
胡麻油	一罐	[illegible]

【朝鮮副業協會調査】

▲秋繭取引市勢

月日	道	所	高價	低價	賣價	數量
[illegible]		燕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光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信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谷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鳳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金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	順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北	昌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畿	水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	成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國債利子課稅와 金融政策의 相剋

稅制整理案에잇서 最後까지남은難問題 國債利子課稅의 方法은 赤字公債消化와 負擔公平의原則에 關聯하야 大藏省內에서主稅局과 理財局과의間에 深刻한對立을 惹起하야 馬場藏相의裁斷으로 겨우解決을 본것이다何故로 如斯히 이問題가 紛糾하얏는가 또는 最後에 如何히解決되엇는가를 이에 簡單히述하자。

×

近代國家의 租稅制度에잇서所得稅가 中心이되어잇슴은 이제다시 述할것도업다 그는租稅의原則인 「負擔公平」을 實現함에는各個人의 全所得을 包括하야大所得者에 重課하고 小所得者에 輕課함이 理論的이다 日本現行所得稅法에 依하면 第三種의個人所得稅에 잇서서는 個人의所得을 綜合하야 千二百圓以上의所得者에 累進率로 課稅하고또法人에도 同樣 經濟生活上의人格을 認하고 어느程度의 累進稅率로써 綜合課稅하고잇다그런데이에 第二種所得이라 稱하야公債、社債、銀行預金利子等은이 第一種、第三種의 綜合所得에서 除外하야 別個로源泉課稅에依하야 百分의 四乃至五의比率稅를 課하고잇다 그中에서도國債利子에 이르러서는 所得稅를 一切 免除하고잇다

그結果、例하면 가령十萬圓의所得이잇는사람이라도

(가) 普通이면 第三種所得稅 一萬四千九百六十五圓이 課稅될것인데

(나) 十萬圓中 五萬圓이 公社債利子나 銀行預金利子이면 此分은 第二種으로 別個로百分의四 又는 五의比例稅로될으로 第三種所得稅는二千圓乃至二千五百圓과 他五萬圓이累進課稅로五千八百餘圓、合計七千八千圓乃至八千三百圓으로되고

(다) 萬一 五萬圓이 國債利子이면 此分은 免稅되어 所得稅는 五千八百餘圓으로된다

이것만으로도 第二種所得을切離하야 源泉課稅함이 所謂「負擔公平」에對하야 如何히 큰除外例가되어잇는가를 알수잇다。

◇

이에對하야 더욱큰問題를 提起한것은 最近의 赤字公債增發에依하야 銀行等의 所持國債가急增한結果 비로소認識된 國債免稅의 特典의偉大한効果이다。玆四年間에 赤字公債가 增發되어 國債額은 四十億圓이 急增하얏는데 그大部分이 銀行의손에 모이고 그다음 預金部、保險會社、信託會社等이 나머지大部分을 保有하게되엇다 그리고 一方 貸出은 減退되어정 增加되지안하 結局 只今까지 單只 支拂準備的 意味를 갓고잇든 國債利子가 此等 金融機關에 就中 銀行에 對하야서는 重大한 收益源泉으로 되엇다 그런데 이國債를 사서 利子를 獲得함은 貸付나 割引等과 달라서 一分도 營業費가 들지안코 좋채로 收入이 되는우에 所得稅도 업다 低金利로 利鞘가 縮少하야 業績의 低下에 苦悶하고 잇는 銀行은 처음에는 單只 그밧게 投資物件이 업슴으로 不得已 國債를 사고 잇섯스나 此點을 漸次 알게되자 積極的으로國債를買入하게되엇다。具體的으로 말하면 甲銀行이 半期百萬圓의 純益을 擧하얏다하야도 全收入中에 六十萬圓의國債利子가 잇스면 그만치는 所得稅가 免稅되고 殘餘의 四十萬圓에 對하야서만 所得稅를納入하면된다 貯蓄銀行과 如함은法律로서 國債保有를 强制되어잇는 關係도잇서서 國債所持比例가 자못 만하 國債利子收入이納益으로부터 所得稅를 納入하는일이업다 그럼으로 銀行이나信託이나 그他의 金融機關이如何히 赤字公債에 끌리고잇는가는 想像以上이다

이러케보면 國債優遇도 至極度를 지나친形態요 稅制整理를 말하야도 이第二種所得의 綜合問題와함께 國債利子課稅의 問題가 이러나게된 理由를 알수잇다

×

國債는 前述한 所得稅免稅外例의 國債優遇法에依하야 市價가 低落하야도 發行價格으로資産評價를 할수잇다든가 日銀은國債擔保貸付를 特히 低率無條件으로 優待한다든가 供託에는市價가 低廉하야도 國債면 額面대로 評價한다든가 그他여러가지 特典이 賦與되어잇다 그由來는 別問題로하고 只今부터더욱 半永久的으로 赤字公債를發行하야 가지안코면안되고 따라 그消化如何가 日本經濟에잇서 무어보다도 重大問題인이때 이러한 特典을 多少라도 剝脫함은 金融政策의 立場으로보면 危險至極한일이라할은 理由가업지안타 國債課稅、第二種의 第三種所得에의 綜合에 反對하는 理財局의 異論은 여기서 出發한다。

×

이제 國債의 利廻는 三分半債의發行以後 漸次小刻으로 引下되고는잇스나 大體 三分六厘六毛程度로되어잇다 이것이 大體의 長期金利의 標準으로되어銀行定期預金 三分二厘이라든가 그他의貸付利率、割引率、公社債利廻等 모든 採算의 基礎는 여긔에두고잇다 그런데 이제 國債에 所得稅를課하고 게다가 比例稅率이아니오 第一種과 第三種에綜合하야 累進稅率로 課稅하게되면 國債를 가질만한者는모다 大所得者이오 또 큰金融機關임으로 새로 負擔할 稅額도 決코 不少하다。

所得稅率을 引上하고 同時에 資本利子稅도 引上한우에 一擧國債에 急激한 重稅를 課하게됨으로 그衝動은 甚大하야 金利水準은 急變되어 金融市場은混亂에 陷入할 念慮가잇다 萬一 免稅特典剝奪에依하야 國債의 實質上利廻가 三分六厘餘에서 三分乃至 그以下로 低下하면 當然 銀行은 採算이되지안허 國債를 사지안케될것이오그他金融機關도 株式이나 社債로轉向하게될것이다 그는 惡性인景氣의 端緖다 그리고 一方에는 銀行預金利子引下를 하게될것이며 이로 大衆은 銀行에서郵貯로轉하야 金利水準이 再低下할 混沌한狀態를 招來치안흘가 危懼는漸次로發展할것이다。即 問題는 國民大衆의 直接的利害問題보다도 金融政策의混亂으로 惡性인플레防遏의 問題에 關係가잇다。

×

그러나 主稅局側의 立論은이러하다—稅負擔이 重하게됨은 國債만이아니다 第二種으로 綜合되는社債、地方債의利子、銀行預金、信託配當等의 金利指標도 同樣하다 株式配當의 四割控除廢止와 資本利子增課、證券移轉稅等은 株式에의 資本逃避를抑制할것이다 그리고 第一種、第三種所得稅만아니라 모두가 一般的으로 增稅됨으로 國債만을 그대로 優遇할것은못된다 特히 國債만을 不待接하는것이아니고 모다 一樣히 負擔이 重하야지는것으로 그리 念慮할것이못된다 現今의 金融界情勢로 赤字公債를 사지안흐면 結局다시投資物件에 窮할것은明白하다 이만한 課稅로 國債消化를 念慮함은 杞憂이다 稅制整理로서는 此際 萬難을 排하고 第二種의 第三種에의 綜合을 實現하야 所得稅制度를 整備할 好機이다 徵稅技術上의 困難은 大膽 克服할自信이잇다 多少의 脫稅遺漏는 國民大衆에 犧牲을 强制하는 此際 「負擔公平」「大所得者重課」를위하야 不得已한일이다

×

이와가티 主稅局과 理財局과의 論爭은 못치지안허 드되어 馬場藏相의 裁斷에 一任되어 그結果如左히 決定을보앗다

一、第二種을 第三種 及 第一種에 綜合課稅하는 原則은 實行하고 國債利子에도 所得稅를 課할것

二、國債消化에의 打擊을 緩和하기爲하야 左의 處置를 取할것

(가) 國債利子所得에 對하야 現行株式配當과 同樣、控除設定을認할것

(나) 國債消化力의 源泉인 公社債利子、銀行預金利子、信託配當等에도 어느程度의 控除를 設定할것

(다) 國債利子에의 資本利子稅、有價證券移轉稅其他보다 低率로할것

右와如히 所得稅의 綜合課稅主義ー即「負擔公平」의 徹底ー와 金融政策의 實際와는 이에도 折衷妥協되게되엇는데 稅制全般의劃期的整理方法과 對照하야 이때도 不得已한 時代의反映이라할것이다

本社接受水害救濟品 (九月三十日現在)

物品合計 十四萬一千九十點
穀物合計 三十五俵一斗四升九合

紅把、杏村町會 (二回分) 衣 一三三點

權泰旭 五點▲金元植 三點
安順德 五點

竹添町三丁目町會 (二回分) 衣 二七八點

增田大吉 一七點▲米東源 五點
車田勝三 二點▲五十部章助 三二點
廣安宗次郞 五點▲林尾彰子 二八點
宋鍾鳴 一點▲千永基 二點
宮崎正一 二點▲福野勝三郞 七點
藤田末藏 八點

統營支局經由 衣 一六五點

統營耶穌敎會敎人一同 百十五點
進明女學校及進明女子夜學校生徒一同 五十點

大本山乾鳳寺 京城中央布敎所 衣 一六七點

金虎山 十點▲金十地日 二點
韓日月 一〇〇點▲李靑松月 四點
朴萬善行 一〇〇點▲申福由行 六點
南妙法心 二〇點▲梁信心華 五點
權善心華 二點▲池金蓮心 十點
黃寶蓮華 六點▲權觀音性 三點
安金剛華 七點▲朴 氏 十一點
朴法雲行 十點▲徐妙覺華 三點
金正覺月 三點▲高正覺華 七點
朴慧圓行 四點▲李極樂心 四點
崔極樂華 二點▲金在貞 二點
朴寶行 二點▲鄭妙光華 七點
金南順 十點

蔚山支局經由 衣 一三三一點

蔚山佛敎女子夜學院兒童一同 三六點
金東淡 卅七點▲李蓮花藏 卄六點
鄭七佛華 一三點▲金 氏 九點
朴普光明 八點▲朴時蓮 五點
朴萬香華 四點▲宋 氏 四點
金完福 四點▲金得龍 四點
李上品華 四點▲崔務安 五點
無名氏 三點▲金雨龍 三點
立岩宅 三點▲車大覺心 三點
李福德華 三點▲朴鳴遠 二點
朴 氏 二點▲朴在業 二點
崔命福 二點▲李普門華 二點
李上品行 二點▲許最上華 五點
尹萬樹華 二點▲金善修華 三點
宋金剛雲 一點▲李無常華 一點
金壽修華 一點▲徐 氏 一點
迎日宅 一點▲金燦振 一點
具小福 八點▲孫寶榮 九點
金榮澤 三點

老姑山町會 衣 三六五點

姜仲熙 四點▲李允儀 三點

鄭明吉 三點▲金炳雲 三點
蘇萬福 三點▲李順白 四點
朴光瑞 一點▲房善興 五點
具聖喜 一點▲黃永燦 二點
西谷滿一 五點▲鄭東憲 三點
朴八俊 五點▲郭東赫 八點
李演成 一點▲金秉璇 六點
朴五峰 一點▲方日文 一點
延李白 四點▲諸阿只 二點
河萬興 四點▲宋用君 四點
金德業 二點▲金允善 三點
尹逆秀 二點▲黃啓鳳 一點
黃點鳳 一點▲高永奎 七點
金琮汝 一點▲鄭益敎 一點
河點福 三點▲李明九 一點
蔡奎亭 三點▲李贊九 一點
金元興 一點▲金亨植 一點
朴伊洪 二點▲金聖鎭 三點
金興善 九點▲朴學浩 二點
金順萬 二點▲高德文 二點
康永萬 八點▲文相學 二點
朴龍成 三點▲金弘奎 一點
河正寶 二點▲孫仁基 二點
黃一鳳 二點▲宋昌五 十點
秦仁德 一點▲蔡吉福 七點
丁明俊 八點▲嚴致宅 三點
朴龍鳳 一點▲李泰山 六點
金德鉉 一點▲申用雨 一點
李錫鎬 二點▲柳乙善 二點
康德全 九點▲崔鍾南 四點
陳德元 二點▲金泰永 一點
金乙順 一點▲白東善 二點
朴今童 一點▲宋中植 三點
崔永周 一點▲李俊永 三點
河今福 一點▲高永信 一點
金炳相 一點▲申玄重 一點
高俊元 一點▲李鳳龍 二點
安泰模 三點▲宋德根 一點
李昌洙 三點▲吳章煥 二點
裵永俊 三點▲吳興東 一點
咸辰洙 一點▲任基善 二點
李德鉉 二點▲宋東烈 一點
張世興 二點▲任末伊 一點
尹炳憲 二點▲尹瑞鉉 一點
李東玉 二點▲李鍾錫 一點
車炳浩 二點▲申利均 二點
全順吉 一點▲金大玄 一點
白樂善 一點▲金鳳學 二點
鄭奉豐 二點▲南貞淑 一點
梁順玉 三點▲宋基鎔 一點
鄭泰敎 三點▲諸順瑞 一點
金基元 一點▲無名氏 三點
金會變 三點▲嚴東變 一點
李九相 一點▲鄭萬福 一點
李用錫 一點▲許基福 三點
玄雲澤 三點▲朴淳喜 十三點
朴任成 五點▲李成義 十七點
金德五 五點▲孫宗根 二點
河聖初 一點▲李光世 一點
鄭奉京 三點▲林龍兪 一點
盧甲淳 六點▲李春植 一點
朴齊元 一點▲許 令 二點
申喆敎 一點▲李永玄 三點
宋銀男 一點▲宋景順 四點
韓英根 三點▲鄭敬模 三點
靴 一足

支部直屬愛國婦人會兵庫支部十圓石川縣外三縣、四縣聯合愛子婦人會滿洲慰問團一行一圓寄町官舍村上君枝五十圓松濤町社合有賀公子十五圓朔寧町四二、愛國婦人會朝鮮本部職員班員職員一同▲六、七〇平南、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龍岡棉作支場▲五〇、〇〇對滿事務局次長靑木一男▲一、〇〇京城地方專賣局元山販賣所職員▲一、二四京城地方專賣局九化販賣所職員(寄附額一圓三十二錢中送金料八錢除)▲八、〇〇咸鏡南道朝鮮總督府永興學校生徒一同▲六、〇五同朝鮮總督府永興學校職員▲六五京城地方專賣局咸興出張所社會販賣所職員▲六六京城地方法院淮陽出張所職員▲八、九七海州刑務所瑞興支所職員▲四〇京城地方專賣局興南販賣所安保龍雄▲四〇、二八京城帝國大學豫科生徒一同(京城日報社扱)▲二〇、〇九咸興憲兵隊本部職員一、〇〇馬越恭一(東京事務所上山敏雄氏扱)▲八〇、四六東京市小石川區大塚坂下町一七新義眞言宗豊山派托鉢市施代表杉本亮 (同)▲五〇、〇〇同悲田會淨財金(同)▲七、九九京城地方專賣局忠州出張所職員(書留料十三錢及小爲替料七錢計二十錢除)▲二五、四四海州刑務所職員一同▲六六、〇〇京都府舞鶴町、見海寺中和進會員▲一〇、〇〇京都府舞鶴町各宗寺院道和會(十二ヶ寺)▲一〇、〇〇同加佐郡佛敎會(百十七ヶ寺)▲五、〇〇同舞鶴町和進會(通常會計中에서)▲四、八二總州稅務署職員一同(寄附額五圓一錢에서 小爲替料五錢及郵便書留料十三錢合計十八錢除한額)▲二、四三江陵稅務署職員一同(寄附額二圓六十錢에서送金料十八錢除한額)▲六、一三大邱憲兵隊本部職員▲四、三九大邱憲兵分隊職員▲四、三五光州憲兵分隊職員▲二、二四大田憲兵分隊職員▲七、五四鎭海憲兵分隊職員▲八〇、九四名古屋市在住朝鮮人一同(名古屋新聞社扱)寄附額▲一七〇內送金料十錢除)

社會事業協會收合 水害義捐金

▲三〇、〇〇京城商工會議所職員一同▲五、〇〇長谷川町京城基督敎聯合會▲四五、〇〇栃木縣宇都宮市、愛ニ少年團健兒團員一同▲六、五〇京城地方法院議政府出張所職員▲二、〇〇開城專賣局販賣三(住友銀行下關支店扱)▲二四、四〇東京市蒲田區羽田居留朝鮮人一同▲一、〇〇三重縣、四日市警察署扱住所氏名不詳▲一九、九五朝鮮陸軍倉庫職員一同▲二七、七六京畿道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庶務部▲一〇、八一咸興中央町三의六〇咸興營林署職員▲一〇八、九六京城地方法院職員一同▲二〇八、二七朝鮮總督府殖産局▲一〇二、六五本町警察署扱(內譯)一百圓也、京城府永樂町一의五八、山本三平二圓六十五錢也京城府本町二의二南山小學校三年一組柳屋亨▲二五六、一三朝鮮總督府農林局▲一〇、六〇愛知縣丹羽郡布袋町在住朝鮮人(布袋町役場扱)▲五、〇〇新潟縣刈羽郡柏崎町向上融和會金澤根▲一六圓、六〇神奈川縣三浦郡三崎町自力更生貯蓄組合▲二四、〇〇久留米市役所社會課內久留米內鮮親和會▲五、〇〇東京市杉並區東京鐵道學校內朝鮮學友親和會▲五、五〇東京市杉並區東京鐵道學校內職員生徒一同▲二一、三〇福井縣坂井郡丸岡町、丸岡在外靑年團一同▲四、〇七神奈川縣小田原警察署扱分神奈川縣足柄下郡酒匂村在住朝鮮人▲二、二三七和歌山縣有功村直川村在住朝鮮人(和歌山縣警察部扱)▲九、〇〇愛知縣額田郡岩津町宮石地方在住朝鮮人大垣市、屆村町、郡多治(大垣警察署扱)▲二、二〇京城公立商業學校生徒一同(京城日報社扱)▲一〇、二〇京城府敎岩町五〇九、佛法研究會支部▲五八、九〇、四一京城帝國大學職員一同▲二〇、九〇內鮮相助會總本部職員外一件(內譯)一金貳百圓也、(伊丹警察署管內)內鮮相助會總本部內鮮總助會總本部會員一同、代表者魯于綠外六名一金壹圓也兵庫縣川邊郡立花村、郡是纖維株式會社內崔田あい子(送金料十錢差引收入)▲一二、三〇朝鮮總督府專賣局廣梁灣出張所職員▲一、三〇〇、〇〇朝鮮鐵道株式會社、京城府古市町動車車庫運轉手一同(京日社扱)▲三、六〇倉重利美外三名(京城日報社扱)▲五、〇〇京城府鍾路致德 崔仁基 秉範成 林田吉一 李向烈 大場平郞 印鳳進 方世榮 金昌洙 鄭泰植▲一、六、四〇江景公立商業學校生徒(京城日報社扱)▲五〇、〇〇東京市日本橋區通五吉林朝鮮人森村豊明會▲一三〇、六財團法人森村豊明會及同榮會▲一八一〇朝鮮總督府警察官講習所職員▲一、四〇咸南利原郡東面上仙里本上梓▲四、〇八全北益山郡朝鮮一九黃海道沙里院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西鮮支場▲六〇慶北善山法院出張所官舍石田長一▲一〇、五〇二會寧第二飛行聯隊司令部職員一同▲六〇咸北茂山郡茂山稅關出張所職員▲六、二六陸軍築城部本部釜山出張所職員▲五、九五本府專務局長富永文一▲二五、一七福岡縣田川郡春日町居住金宗洙外一三四名▲五、六〇福岡縣田川郡方城村大字伊方在金成生外一四名▲二〇殿▲一二、八五京城覆審法院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職員▲三四、三五神戶市灘區都通合資會社調子商會從業員▲四、五一濟州稅務署職員一同▲六、三三五黃海道金川郡、長洞農共濟組合▲一〇、〇〇新京ダイヤ街、一ッ家從事員一同▲二四、九〇公州刑務所職員一同▲五八東京市神田區淡路町谷口新治郞▲人會朝鮮本部(內譯)五圓遷來町、伊藤小都子五圓也旭町官舍松原鶴子十圓本町五丁目、婦人獎風會京城販賣所職員▲一、〇〇愛知縣渥美郡泉村(泉村長、下村倉治氏扱)▲一〇、〇〇東京市神山區元岩井町會(いわ、會長鈴木氏扱)▲四三、六一平壤憲兵隊本部分隊職員新義州憲兵分隊職員滿浦鎭憲兵分遣隊職員碧潼憲兵分駐所職員江界憲兵分遣隊中江鎭憲兵分遣隊職員厚昌憲兵分遣隊職員楚山憲兵分遣隊員▲五、〇〇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職員▲二三、五七仁川稅關職員一同▲五四、四二仁川府廳石町自治修養靑年會外二件(門司警察署扱)▲一、五〇黃海道安岳郡龍順公立普通學校生徒(大朝京城支局扱)▲二〇、〇〇北滿穆稜縣八面通義徵變外二六名(京日社扱)▲一一五、二八府民館懇親會에서募集(財團法人、日本小兒科學會會頭、土橋光太郞氏扱)▲八〇、六〇朝鮮纖道株式會社本社職員一同▲三、〇〇、〇〇各宮家의救恤金御下賜金(本府東京事務所土山敏雄氏扱)▲一二、〇〇茨城縣下妻町在住朝鮮人(下妻警察署扱)▲一七、五〇名古屋市、日本碍子株式會社在勤鮮人一同(御器所警察署)▲八、八〇和歌山縣西牟婁郡、江住村在住朝鮮人▲二三八、八〇福岡市九州日報社扱(內譯別紙)▲六五、一〇滿洲國錦州省錦州居留朝鮮人一同▲一五八、〇〇滿洲國遼陽地方事務所社會係(大阪每日新聞販賣所扱)▲七五、五〇滿洲國協和會龍井分會(東亞日報龍井支局外二新聞社主催)▲四、〇〇〇、〇〇南大門通、京城電氣株式會社▲一〇〇、〇〇上海日本人基督敎會內有志一同

九月二十八日現在累計 一九六、三二四、二〇

一金壹百貳拾圓九拾錢也 愛國婦人會朝鮮支部會員三十九名分內譯 五圓也永秀銅雲町二ノ一二 五圓也志賀直ヲ本町二丁目五圓也林田ナミ三丁目五圓也梅林キク黃金町一ノ二四八五圓也古城拾子明治町一丁目一圓伊藤アサ倭城台官舍十圓也篠田松枝同五圓也倉田初子本町二丁目五十圓也水月會員(氏名左記ノ通リ)大竹ミヨシ、山田秋子、田中美律子、槇嶺もし子吉田美省、林みね子矢島竹節、棟居久子、增永セン子竹井義子五圓也李梅子網路五丁目五圓也中島濱子明治町二圓也スエ漢江通十二圓也陳內愛子漢江通十三圓也岡崎愛子竹添町一丁目十一圓也內藤光野目出町二圓五圓也麻柄トヨ(愛子幼稚園)一圓黃吉麗(同)五十錢也黃吉ト(同)五十錢也靑島ハルヨ(同)同額村上コトヨ(同)同額尹舜圭(同)▲三十錢也黃天德(愛國幼稚園)同洪榮變(同)同羽多野トリ(同)

黃昏 (192)

韓雪野 作　安夕影 畵

그전후 (四)

얼빗한 목소리면서도 얼핏 생각이 나지안허서 잠시 고개를 갸웃하고 생각하고 잇슬때에 두번재、

「복술이 잇소?」

하는 굵은 목소리가 들려왓다。

「누구요?」

하고 그제야 문을 밀고 마루로 나서든 복술은 순간、가슴이 철렁함을 늣겻다。

그는 동필이엇다、전연 의외의 일이엇다。근래에 동필은 복술이를 차자올일이라고 한번도 업든터이다。

동필이와 복술이는 비록 한때나마 젊은 말과맘의 흐름이 일이 되어버리엇고 또 더욱 동필은 고립한 처지에 잇고 복술은 저간 주식이들과 늘 래도를 가리하여온 관계로、그들은 표면상 남남사이보다도 더 심상히 지나오면서도 내면으로는 야릇하게 감정의 갈르을 깁게하여오든터이다。

그러니만치 복술에게는 동필이가 돌연히 차자왓다는것이 풀수업는 수수꺼끼와 가티 생각되지 안흘수 업섯다。

「주식이 안왓소?」

동필의 물음은 또한번 복술을 놀라게 하엿다。주식이들과 자기가 만나기로 약속한것을 눈치차린것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낫든것이다。

「주식씨요? 아니요……」

복술이가 잡아떼듯이 이러케 잘라말하고 잇슬때에 정님이가 박그로 나왓다。

「난、가겟다。또 오마」

하고 그는 겻눈도 팔지안코 쪼르루 나가버렷다。

「또 놀라오너라 응」

하고 복술은 정님을 보내고 나서、재처 동필에게、

「주식씨가 웨 여길 와요?」

하고 약간 힐문하는 어조로 반문하엿다。

「주식이는 이집으로 못오는 사람인가요?」

동필은 자못 냉담한 태도로 눈도 꿈적하지안코 버티고섯다。

「글세 못올거야 업지만、평생 안오든 사람이 별안간 여길 올리가 잇서요……?」

「평생 안와요?」

동필의 어성에는 확실히 무슨 트집이 잇는것가렷다。상기한 그의얼굴은 불빗처 비처 떠옥 으르하게 뵈엿다。

「그럼요 올일이라고 잇서야지요?」

「그럼 복술은 한숨 늦추어가지고 될수잇는대로 감정이 상하지안흘 정도로 오든지 말하엿다。

「이집으로 아직 대의한다도 그가 갓소은 일러지요?」

「그사람이 간데를 내가어떠게 압니까?」

「그러지 말고 얼는 애기해보십시요」

하고 동필은 별안간 덤벗이 선미를 나추엇스나、느슨이를 아붓든 품이 복술에게는 도리혀 진저리여서

「애긴 무슨 애기애요……몰른다지 안슴니까!」

하고 성을 내엇다

「몰르지 안흘겁니다。몰을리기 잇습니까?」

동필은 여전히 느린소리로할하며냉조(冷嘲)에 찬 기숨을흐하고 내뿜는다。

「몰른다는데、웨……주정하시는 겁니까?」사실동필은 술이얼근히취해서잇다。

「주정이요……아따 주인을 찾고들어왓고、또들어와서는 그만츰 뚝뚝히 래의(來意)를말하는데 주정은 무슨 주정입니까?

……잠오간 긴말할거업시주식의 갓는이나 가르처주십시요 그리면 곳 가지요。그것만 일면이……」집에서의 용무는 필하니가요……

「글세、몰른다지 안햇습니까? 남이 어되로 다니는지 내가일 까닭이 잇겟니까?」

「그러지말구 얼른 말슴해보시우……말슴하기가 거북하거든、가리 가십시다그려」

「가긔가다니요? 어되로 간단 말이에요?」

「그가 잇는데로 좀 안내해달란 말입니다」

「그는 집업는 사람이든가요? 그의집에 가보면 알거 아닙니까?」

「집에 업스니까 말이지요……그래서 모처럼 이집으로 차자오겟습니다」

「집에 업는 사람을 내놀 어찌 압니까?」

「당신들의 영웅의 행방을 당신이 모른대서 말이됩니까?……더욱이 때가 때인데 비록 밀불일조라도 그동정(動靜)을 몰룰리가 잇습니까?……

……자아、바쁘실텐데 얼른 보지요。주식이만 만나면 당신한테 대한 용무는 필하는거니까、그담은 얼마든지 당신 볼일을 보십시요」

「언제는 구속되어 살든가요」

「아따 그리면 여기서 기다립시다그려……당신이 차자안가면 그가 곳 차지올거니까…자아실례합니다」

하고 동필은 다짜고짜로 방으로 성큼뛰어서다。